

↑ 코스피 2557.08 (+19.29)	↑ 코스닥 852.04 (+10.32)
↓ 금리 (연-0.01%) 3.321 (-0.019)	↓ 환율 (원-달러) 1318.10 (-8.60)



반도체 패권경쟁 격화... 美-中 싸움에 韓 새우등 위기

‘G7 공동성명’ 보복나선 中
美 기업 마이크론에 첫 제재
“안보영향 우려, 구매 중지”

美 정부, 동맹국들과 대응 입장
韓, 무역분쟁 확대 가능성 우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규제에 맞불을 놓으며 갈등을 키우는 모습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썬잡이 복잡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안보심사관공실(CAC)은 미국 마이크론 제품에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CAC는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 산하 단체로, 중국에서 판매 중인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를 통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제품 구매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CAC는 지난달 31일 정보시설 안전을 위해 마이크론 제품을 대상으로 안보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마이크론은 중국 정부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론도 CAC 통지를 받았으면서도 중국 정부와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 앞서 중국은 ‘반간첩법’ 개정과 함께 민츠 그룹 베이징 사무소와 베인앤드컴퍼니 상하이 사무소, 컨설팅업체 캡비전을



손 잡는 尹 대통령과 EU 지도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사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수색하는 등 현지 미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이번 발표도 G7이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한 다음날 내놓은 것이라 ‘맞불’ 전략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미국 정부도 즉각 대응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동맹국들과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어졌던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들며 중국이 주장하는 투명

규제 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불뚱이 우려된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국내 반도체 업계에 ‘반사이익’을 누리지 말라는 뜻을 전달했다.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족분을 추가로 공급하지 말라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조치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경고라고 보기도 한다. 현지 마이크론 점유율이 높지 않아서 제재 효과도 적고 반사이

익도 크지않다는 것. 반도체 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미중무역분쟁이 더 확대될 가능성에는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시장이 불안정하면 당장 판매뿐 아니라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국이 현지 업체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무역 규제에 애플 등 업체들이 중국 반도

체 도입을 포기한 상황, 마이크론 대신 현지 메모리 업체의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추측이다.

실제로 중국 메모리 업체는 미중 분쟁 속에서도 경쟁력을 크게 확대해왔다. YMTC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로 200단대 낸드플래시 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며, 중국 창신메모리도 미국에서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다시 10나노대 D램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업황부진 석화업계,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 소재’ 키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매년 급성장
LG화학, 종합전지 소재 회사 육성
롯데, 동박 등 생산능력 확대 추진



동박 제품 모습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석유화학업계가 업황 부진을 겪으면서도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생산 확대로 수익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시황에 영향을 크게 받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사업에 치중하기보다, 미래 소재·배터리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확보를 통해 개발과 생산 확대로 역량 강화하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한 소재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설정하는 시류가 강해졌다. 좀처럼 다운 사이클을 극복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석유화학시장에서 눈을 돌려 성장하고 있

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 올라타려는 분위기다. 배터리 소재가 화학사의 메인 사업은 아니지만 향후 전기차 시장 성장 전망이 밝아 화학사들의 미래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전기차 인도는 약 27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으며, 2035년 전기차 예상 판

매 대수를 약 8000만대로 보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성장 속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빨라질 전망이다. 주요 배터리 소재 중 동박 시장 규모는 2018년 1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1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정부도 ‘미래 수출 주력 품목’에 전기차와 양극재 등 30대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할 정도로 수출 지원도 하는 터라 기업으로서의 개발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은 배터리 소재 사업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LG화학을 ‘글로벌 톱 종합 전지 소재 회사’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만큼 배터리 소재 사업의 성장성 높다는 의미다.

LG화학은 올해 스페셜티를 키우기 위한 별도 조직 넥솔루션(Nexolution)과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 사업부를 꾸리며 전문성을 강화한다. 서스테이너빌리티는 POE(폴리에틸렌 옥사이드)와 CNT(탄소나노튜브)를 담당한다. POE는 태양전지를 보호하고 전력손실을 최소화하는 용도로 쓰인다. CNT는 열전도율이 구리·다이아몬드와 동일하고 강도는 철강의 100배에 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배터리의 필수 소재로 꼽히는 ‘하이켈 양극재’의 생산 능력도 확대한다. LG화학은 올해 12만톤의 규모의 생산 능력을 2028년 47만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LG화학 측은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신규

글로벌 고객사 비중도 확대해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전략을 세우는 이유는 이미 1분기에 첨단소재부분의 가능성이 영업 이익으로도 증명됐기 때문이다. LG화학 석유화학부문은 영업손실 508억원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첨단소재부문이 영업이익 202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롯데케미칼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를 통해 동박 생산 능력을 강화한다. 연간 동박 생산 능력을 지난해 말 6만 톤에서 2027년 22만5000톤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경훈 롯데케미칼 전지소재사업단 사업전략담당(상무)은 지난 11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인수 후에 이차전지 소재 사업 매출은 2030년에 보수적으로 봐도 7조원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야권 “이승만, 불법계엄 내란죄”... 박민식 “4·19 주역 ‘李’ 평가해야”
▲ 윤재옥 “전세사기 특별법, 국민 납득할 최선의 지원 조치” /사진 뉴시스

▲ 김종민, 개발 청년 정치인 공격에 “정치폭력 선 그어야”
▲ 김건희 여사 ‘영부인 외교’... 이달만 10여개 일정 소화



▲ 박진 “尹, 한일 정상회담서 후쿠시마 오염수 입장 확실히 말해” /사진 뉴시스
▲ “대화 실종, 국민이 정치 걱정”... 원로들에게 혼쭐난 여야 대표

“美 관계 강화, 中 외면 아냐… 수출감소 원인, 경쟁력 약화”

추경호 부총리·이창용 한은총재
“美中 양자택일 흑백논리 벗어나
국익 기반 경제협력관계 확대”

“반도체·생산업 중심 수출이 문제
중특수 사라져… 경쟁력 강화를”

“탈(脫)중국 선언한 적도 없고, 할 의도도 전혀 없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을 외면하는 것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임시 국회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으로의 과도한 집중이대(對)중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미국과 중국 중앙 자택일해야 하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국익에 기반해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달러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14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됐다. 14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보다 크지 않다. 대중국 수출은 이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했고, 이달 1~20일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23.4% 줄었다. 중국기업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지고 자국산 선호심

리가 강해지며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 이후 중국대사를 만나 올해 예정된 한중 재무장관회의가 빠르게 열릴 수 있도록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주기상(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릴 때이지만 일정이 여의치 않으면 제가 중국에 가겠다고 얘기했다. 국

익에 기반한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

◆“우리기업 중간재, 중국기업도 만들어”

이창용 한은총재는 중국수출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사실상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출하는 중간재를 중국기업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업 중심 구조에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외교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수출 품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하반기 중국의 경제회복 성장률에 따라 국내에도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가 내수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어 긍정적 효과는 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중국 재고가 줄고, 수요가 증가하면 (경제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10년간

중국 특수로 인해 얻은 혜택이 사라진 상태라 보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올해 50조원 세수부족 예상·추경없다

이날 추 부총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5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경기가 서서히 나아지면 회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2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법인세가 당초 생각보다 크게 부족하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은 수준에서 지금 조정 과정을 빠르게 거치고 있어 지난 하반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에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이 두 부분이 지금 세수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데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역외보조금법·핵심원자재법 등 협조 촉구

獨 수교 140주년… 공급망 강화 논의
산업부, 독일 총리실 사무차관 면담

유럽(EU) 내 한국의 1위 교역국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기록한 독일과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 및 산업공급망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외르크 쿠키스 독일 총리실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독 공급망 협력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과 독일의 교역액은 2019년 286억달러, 2020년 303억달러, 2021년 331억달러에 이어 지난해 337억달러로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기록했다.

안 본부장은 면담에서 우리 정부가 공급망 교란 위험대응을 위해 도입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으며, 양측은 산업공급망 분야에서 양국 협력강화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외르크 쿠키스 독일 경제담당 사무차관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 본부장은 특히 EU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탄소국경제도, 역외보조금법과 현재 검토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의 경제법안들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역외 기업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기업들의 여건과 역량을 충

분하게 고려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 16일 발효돼 오는 10월부터 전환기간을 거친 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역외보조금은 올해 1월 12일 발효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나랏빛 안늘릴 것”… 추경 가능성 일축

추경호 “가계·기업·정부, 건전성 중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2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추경안 편성 여부를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나랏빛을 늘리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며 “지금 봉착하고 있는 것은 가계, 기업 이든 정부든 각 부문의 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지출 한도를 지난 수년 간에 비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편성해 왔다. 앞

로도 그런(건전 기조)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추경안 편성은 당분간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추 부총리는 또 “(예산) 강제 불용(不用)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수결손과 관련해 강제불용 조치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는 질의에 답했다.

예산 ‘불용’이란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다. 편성된 국책사업 등이 취소·중단됐을 때 이런 조치를 하는데 세수가 부족할 때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우수 중소·중견기업 기술평가비 전액 지원

산업부 ‘기술평가 지원사업’ 공고
총 360건 대상… 최대 500만원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유치나 은행대출에 필요한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3년도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투자유치용 기술평가에 200만원, 보증신청용 기술평가는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투자유치용 기술평가 지원은 총 300건(6억원), 보증신청용 기술평가에는 총 60건(3억원)이 지원된다.

먼저, 투자유치용의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벤처캐피탈(VC)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해

당기업 기술을 평가하고, 투자기관은 기술평가 결과를 검토해 투자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244개 기업에 투자유치용 기술평가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76개 기업이 2266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올해는 300개 기업을 지원해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3000억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투자유치용 기술평가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다. 보증신청용의 경우, 은행대출을 위한 보증서 검토·발급용도의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기술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 협업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고,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경련, MSCI에 韓 관찰대상국 등재 요청

10년만에 선진시장 승격 도전

한국이 선진국에 도전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MSCI(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네셔널)에 ‘연례 시장 분류평가’를 앞두고 한국을 ‘관찰대상국’에 등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김병준 회장직 무대행(사진) 명의 서한을 전달했다.

MSCI는 매년 6월 경제발전과 증권시장 및 유동성, 증권시장 접근성 등을 평가해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독립시장

으로 구분한다. ‘관찰대상국’에 등재되면 1년간 검토를 통해 승격한다.

한국은 현재 신흥시장에 포함돼있다. 1992년 처음 신흥시장에 편입돼 2008년 관찰대상국에 등재되기도 했지만 2014년에는 여기서도 제외됐다.

전경련은 ▲글로벌 경제대국 위상 ▲선진시장 수준의 증시 규모 ▲외국인 투자자 진입장벽 완화 ▲기업 정보 접근성 확대 노력 ▲역외 NDF 시장과 외환시장 개방성 확대 노력 등 5가지를 관



찰대상국에 올라야 할 근거로 들었다.

김 전경련 회장 직 무대행은 “한국 경제와 증권 시장이 이미 선진시장 수준 규모와 위상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다”며 관찰대상국에 포함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고 “한국이 관찰대상국에 등재되고 향후 선진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한국 경제가 큰 도움을 받고 글로벌 금융 확대로 MSCI에도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내달 19일부터 위안화로 홍콩증시 거래... 유연성·유동성 ↑

● 차이나 뉴스&리포트

홍콩증권거래소 이중통화 거래 도입
실소유권 변경없이 주식 교환 가능
알리바바, 콰이서우 등 20곳 신청



홍콩 익스체인지 스퀘어.

다음달 19일부터 홍콩 증시에서도 위안화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가능한 종목이 처음에는 20여개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유동성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만큼 위안화 거래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홍콩이 글로벌 위안화 허브로서의 역할에 적극 나서면서 위안화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홍콩 당국은 동남아시아나 중동 등 무역 결제에 위안화를 사용하는 국가들도 위안화 주식 거래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증권거래소(HKEX)가 다음달 19일부터 홍콩달러-위안

화 이중통화 거래를 시작한다.

HKEX는 아시아에서 3번째로 큰 증권거래소다. 기존에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 팔려면 거래 시스템에서 위안화를 홍콩달러로 바꿔야 했다. 홍콩달러-위안화 이중통화 거래 시스템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없게 된다.

HKEX 니콜라스 아구진 최고경영자(CEO)는 “새로운 이중통화 거래는

홍콩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선도의 역의 위안화 허브로서 홍콩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달러-위안화 이중통화 거래 시스템에서 투자자들은 홍콩달러나 위안

화로 상장된 주식을 실소유권 변경없이 교환할 수 있다. HKEX는 이 과정에서 위안화 유동성을 제공하고 두 통화 간 가격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를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알리바바를 비롯해 HKEX, 안타스포츠, 콰이서우 기술 등 20곳 이상의 홍콩 상장 기업이 이중통화 거래를 신청했다.

알리바바는 “이중통화 거래는 회사 주주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유연성과 주식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구진은 “신중한 상장사들은 현재 홍콩 증시 유동성의 거의 40%를 차지한다”며 “홍콩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주식들이며, 새로운 위안화 거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화 거래는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 조성자와 홍콩 투자자, 해외 투자자들

만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중국 본토 투자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홍콩 로버트리와이왕 금융서비스 부문 의원은 “의회는 이중통화 거래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더 많은 기관이 유동성 제공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많은 중동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무역 결제에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은 위안화를 사용해 홍콩 주식을 거래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며, 국제 금융 센터로서 홍콩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국제 무역에서 중국 위안화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에서는 이미 위안화가 달러를 제친데 이어 중국의 해외 무역에서도 위안화로 결제한 규모가 급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전국 평균 물가상승률 4.7% 소매판매·건설수주·수출 감소

통계청 1분기 지역경제동향

에너지요금 인상에 모든 시·도 물가 ↑
고용률 61.2%... 세종 등 평균 상회

지난 1분기 고물가 행진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소비(소매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를 포함, 일부 지역 소비가 부진한 탓에 전체 소비는 줄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경북지역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9.2% 늘어 시·도 17곳 중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전이 7.5%, 대구가 7.2% 순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문소매점을 비롯해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등의 소매판매가 특히 증가했다.

서울·세종 등의 소비도 증가한 반면, 전국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1.1% 감소했다. 인천(-4.7%)과 제주(-5.8%)도 면세점 판매 부진 등으로 소비가 줄었고 전남이 -1.4%를 나타냈다.

1분기 소비자물가는 전국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올랐다.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전기·가스·수도·외식 가격이 모든 시도의 물가상승을 이끈 것이다.

강원(5.2%)이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충북·전북이 각각 5% 상승을 기록

했다. 세종(4.4%)·대전(4.5%)·경남(4.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치를 보였다.

고용률은 0.7%포인트(p) 오른 61.2%로 나타났다. 세종이 1.8%p 오른 것을 비롯해 울산(1.6%p)과 광주(1.5%p) 등이 평균을 상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0대·50대·60대 이상의 고용률이 올라 전국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건설 수주는 사무실과 점포 등 수주가 감소한 탓으로 12.5% 감소했다.

세종(-82.7%)과 대구(-81.9%), 대전(-74.4%) 등 지역에서 주택과 기계설치 등의 수주가 대폭 감소한 것이다. 반면, 울산(665.0%)과 광주(129.2%), 부산(93.1%) 등은 관련 건설 수주가 호조를 보였다.

수출은 전국적으로 12.6% 감소했다. 충남(-35.3%)을 비롯해 세종(-34.4%), 제주(-22.2%) 등의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수출은 대구(27.6%)와 광주(6.0%), 울산(1.0%)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전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공업생산 또한 전년 동기 대비 9.7% 줄었다. 광공업생산지수 하락폭은 글로벌금융위기 상황이던 지난 2009년 1분기 15.1% 하락 이후 14년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강원(8.6%)과 대구(4.7%), 인천(4.1%) 등에서 전기·가스업, 기타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지만 경기(-23.4%), 서울(-15.3%), 충북(-11.4%)에서 반도체·전자부품 및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줄어 전국적 위축세를 보였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프로세서·컨트롤러 등에서 수출이 줄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에 치솟으며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는 전국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올랐다.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촌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WeConnectScience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듭니다

한 번 사용된 플라스틱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듯

버려진 플라스틱들이
지금 LG화학의 기술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듭니다**

폐플라스틱도 새 것처럼 다시 쓰는
LG화학의 PCR 플라스틱

플라스틱 재활용 아트
Veronika Richterová: GREY MULLET, photo Michal Čihlár

재건축 기대감에 거래량 200건 돌파... 20·30 매수세 몰려

부동산 현장 르포

(2) 노원구 일대

주변 노후단지 예비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호재로 가격↑매물 내내 거래량 늘고 매매가격 상승세 기록 지난 4월 거래량, 자치구 중 3번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 가운데 급매물을 찾는 전화가 늘었다.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거래량을 회복하고 있다.”

지난 18일 찾아간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 주공8단지’. 단지 인근 A공인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중계동 일대의 노후 단지들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에 시동을 걸고 있다.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 주공8단지’.

지하철 4호선 상계역 3번 출구에서 버스를 타고 20분 거리에 위치한 중계 주공8단지는 총 6개동, 696가구 규모다. 지난 1993년 입주를 시작해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채웠다. 단지는 지난 2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난해 중계 주공4·5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상당하다”면서 “재건축 호재 기대로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려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건축 호재 덕분에 거래량이 늘었고 매매가격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04%)보다 0.03%포인트(p) 축소되면서 6주 연속 하락이 줄었다.

같은기간 노원구(0.05%→0.07%)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 4월 노원구의 거래량(21일 기준)은 213건을 기록했다. 송파구(258건)와 강동구(239건)에 이어 서울 자치구 중 3번째로 많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중계 주공8단지’는 이달 전용면적 49㎡가 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월 거래가격(4억5000만원) 대비 1억원 올랐다.

지난 3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중계 주공7단지’의 전용면적 44㎡는 지난 1월 3억7500만원에 거래됐지만, 3개월 만에 거래가격(4억3000만원)이 5500만원 올랐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상계 주공6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가 이달 6억87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거래가격인 5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18.4%(1억700만원)에 달한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난 1월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자리론이 출시된 이후 20·30 세대들의 방문이 늘었고, 대출을 최대한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고 있다”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상계주공1·2·6단지를 비롯해 주변 단지들에서 안전진단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올 최우선 목표 금융안정... 리스크 철저히 대비 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노력 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올 한 해 ‘금융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금융부문의 리스크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저하 등 잠재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일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국내 금융산업은 양호한 유동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금

리·고물가, 경기둔화 압력이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전세사기,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불법사금융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금감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금융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감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준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

수)은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사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스스로의 혁신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자문위가 금감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소통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금융산업과 금감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금감원 스스로의 혁신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자문위원들에게 “세계적 긴축 여파 등에 기인한 어려움에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혁신 및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가상자산, 인공지능(AI) 기술발전, 금융권 ESG 확대 등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은 은행지주 및 은행검사와 관련해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중요 리스크에 역량을 집중하는 검사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과 혁신 역량을 제고하겠다”며 검사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향후 금감원은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감독 방향과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열린 자세로 수렴해 감독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쌀 소비 증대’ 앞장선 식품가, 쌀 활용 먹거리 잇달아 선보

1명당 연간 쌀 소비량 30년 전 절반 밥에 대한 의존도 현저하게 떨어져 떡 등 반조리 식품 쌀 소비량 8.7%↑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면서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는 공급과잉 기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식음료업체가 쌀을 원재료로 한 먹거리를 선보이며 쌀 소비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명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7kg으로, 30년 전인 1992년 소비량(112.9kg)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쌀 소비량 감소의 원인으로는 서구화된 식생활로 쌀밥 섭취가 줄고, 대체식품의 다양화로 밥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떡을 포함한 반조리 식품 등에 사용되는 쌀 소비량은 지난해 51만

5890t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쌀 소비량은 크게 감소했지만 쌀을 활용한 식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 것이다.

업체는 색다른 맛과 경험을 선호하는 MZ세대 소비자에게 맞춰 막걸리에 흑임자 등 색다른 맛을 첨가하거나 밀가루를 대신해 쌀로 만든 톨케이크를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힘쓰고 있다.

보해양조는 ‘인절미’, ‘흑임자’ 등 전통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였다. 지난해 설빙-홈플러스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설빙 인절미순희’를 출시했는데 당시 2주만에 홈플러스 막걸리 카테고리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보해양조는 인기에 힘입어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제품인 ‘흑임자순희’를 선보였다. 보해양조의 순희 막걸리 시리즈는 텃밭함이 적어 깔끔함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인절미와 흑임자가 더해져 한층 더 풍부한 맛과 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풀무원 올가홀푸드는 지난 3월 국내산 쌀로 만든 ‘구워만든 우리 쌀 전병’을 내놨다. ‘구워만든 우리 쌀 전병’은 국산 쌀가루를 사용해 깔끔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밀가루 대신 34~35% 쌀가루를 넣어 밀전병과 비교해 한층 부드럽고 바삭하면서도 고소함까지 느낄 수 있다.

뚜레쥬르가 지난 2021년 출시한 ‘우리쌀 톨케이크’는 올 1분기에 약 11만 개가 판매되며 인기몰이중이다. 이는 출시후 3개월간 판매량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쌀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루쌀’ 상품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가루쌀(품

종명 ‘바로미2’)을 기존 쌀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루쌀은 쌀가루와 달걀 가공 편의성이 크다. 불리는 과정이 필요 없는 건식 제분이 가능하고 단단함이 일반 멥쌀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쉽게 갈린다. 정부는 ‘가루쌀산업육성법’을 긴급대응반으로 꾸리고 제품 개발 사업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사업자 공모를 받아 빵·과자 등을 포함한 총 19개 제품이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해태제과는 오에스에 가루쌀을 적용한 프리미엄 시즌 상품을 개발한다. 삼양식품은 가루쌀로 글루텐 프리 건면을 만들어 짜장라면 제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농심은 볶음 사출면을, SPC삼립은 가루쌀 100%로 휘낭시



통계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명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7kg으로, 30년 전인 1992년 소비량(112.9kg)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진청

에, 파운드케이크 등 디저트류와 빵을 개발한다. 업체는 우선 가루쌀을 이용한 신제품 생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창립 55주년

동서식품

한 잔의 커피로 행복한 내일을 만듭니다

진심을 담은 향기로
따뜻한 위로가 되었던
커피 한 잔

행복한 내일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순간이 행복해지도록

Maxim.
커피라는 행복



與野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 합의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보증금 적용범위 확대

(4.5억~5억)

특별법 상정 25일만에 합의
경·공매 대행서비스 등 담겨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도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난달 28일 특별법 상정된 지 25일 만이다. 최근 늘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여야가 5차례 회의 끝에 이번에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단체들은 여야가 합의한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에 반발했다. 이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수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했다. 정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특별법 적용 대상도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피해자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하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담았다. 대행 서비스에서 정부는 경·공매 비용 70%를 부담한다.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용 회복 지원프로그램 가동 및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도 담겼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특별법 시행 이후 사각지대로 인한 보완 사항이 발견되면 상시적으로 보완 입법할 방침이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원칙은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

는 무이자 대출을 정부가 제시해 그 안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최선의 법안을 만들지 못해 죄송스럽고 안타깝다. 그럼에도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었기에 추후 계속해 수정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법안에 동의했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윤재욱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 처리된 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 공개 의무 등록(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 명시(국회법 개정안) 등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국가유공자 보상·지원 확대... 총선출마 생각해 본 적 없어”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총선출마 여부·전관예우 수혜 도마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정해진 것 없어”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내년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민식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답변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보훈이 국민 일상 속 문화로 정착’, ‘국가유공자 보상·지원, 질적으로 대도약’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질의에 “상투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1년 동안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잘 때까지 국가보훈만 생각한다”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답했다.

박 후보자는 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 점을 언급한 뒤 “여기에 100%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이라며 “정치적인 부분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보훈부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분골쇄

신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보훈처장 임명 대가로 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출마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두고도 “일부 언론 등에서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지적한 것을 봤다”며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출마 같은 경우, 당에서 각 분야에 훌륭한 인재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출마시키고 하는 것”이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다만 강 의원은 “지금은 장관 직분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2006년 검사를 그만둔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게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수용하기도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할 때 대해 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맞

다고 본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법무법인을 만들고, 변호사로 겸직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민주당 공세 대상이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관련 의혹을 언급한 뒤 “빠도 박도 못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 규정은 지금과 달랐던 것으로 안다. 2008년 9월 1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변호사 휴직 신청을 확실히 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직원 착오로 의원 시절,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 명단에 포함된 것이라는 박 후보자 주장에 박용진 의원은 “불법을 오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그게 사실이면 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재차 해명했다.

청문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4·19 혁명으로 불명예 퇴진한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도 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추진 여부, 추진 주체, 예산 등 정해진 게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기념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 김원봉 애국지사 등이 국가보훈부의 예우 대상이냐는 질문도 있었다. 박 후보자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원봉 지사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 필요성’을 언급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백번 지당한 말”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훈비서관 신설을 건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직접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에 여러 번 전달한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최영훈 기자

국민의힘 38.5%·민주당 42.4%... 오차범위 내 접전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조사

김남국 논란에 민주당 지지율 하락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포인트(p) 넘게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으로 인한 악재가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 리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2.2%p 오른 38.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4.6%p 내린 42.4%였다. 정의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3.2%였다.

여론조사상 지지율 추이에서 민주당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오르면서 양당 간 격차는 3월 2주차 이후 10주 만에 오차범위 내(3.9%p)로 좁혀지게 됐다. 지난 주 여론조사에서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0.7%p였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5.1%p ↑), 인천·경기(2.5%p ↑), 대구·경북(2.2%p ↑)와 함께 민주당 정치적 뒷받침 광주·전라(2.2%p ↑)에서도 지난주 대비 지지율이 올랐다. 성별로는 남성

(3.2%p ↑)에서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12.0%p ↑), 30대(6.8%p ↑)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올랐다.

민주당은 정치적 뒷받침 호남권(광주·전라)에서 지난주 대비 2.6%p 하락했다. 나머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9.8%p ↓), 부산·울산·경남(6.3%p ↓), 대구·경북(5.9%p ↓), 인천·경기(4.6%p ↓)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6.3%p ↓)과 남성(2.8%p ↓) 모두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12.9%p ↓), 30대(8.5%p ↓) 등 지난주 대비 지지율이 하락했다. 60대(3.8%p ↓)와 50대(3.1%p ↓)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내렸다. /최영훈 기자

정개특위,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의결

“취득·보유 내역 전액 신고대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 것을 비교하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례조항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를 대상으로도 법안을 적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특례조항을 적용함으로써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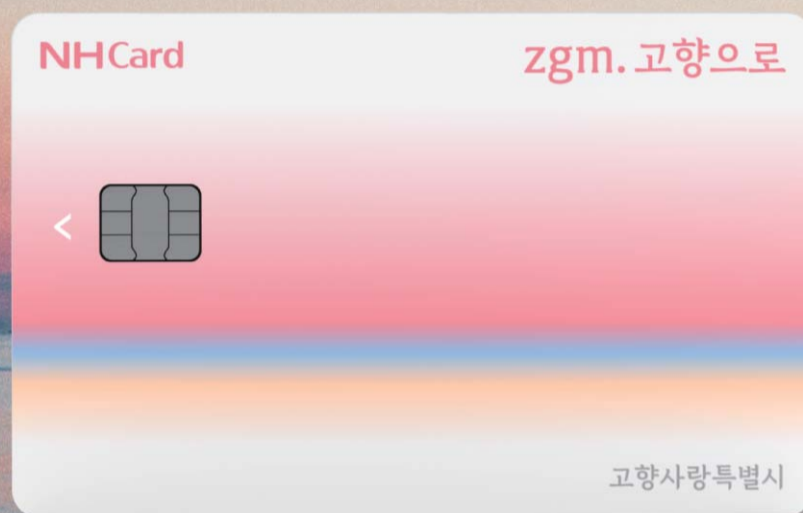
소위원장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은 등록폭이 워낙 크고 해서 다른 자산과는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NHCard

함께하는
100년 동행 

zgm. 고향으로 카드



zgm. 고향으로 카드 주요 서비스

고향사랑에 혜택을 더해
최대 1.7% NH포인트 적립

구분	평일(월~금)	주말(토, 일)
기본 서비스	국내/해외 0.7%	국내 1.0%, 해외 0.7%
우대 서비스	-	① 기부지역 광역시·도 오프라인 가맹점 1.7% ② 전국 농협판매장(하나로 마트, 농협주유소 등) 1.7%

고향사랑 기본 서비스

고향사랑 기본 서비스는 카드를 발급 받은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국내/해외 이용가맹점 0.7% NH포인트 기본적립**

※ 전월실적 조건 및 적립한도는 없습니다.
※ 해외이용 시 국제브랜드수수료 및 해외서비스수수료가 별도로 포함되어 청구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외이용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말(토·일요일) 국내 이용가맹점 0.3% NH포인트 추가적립**

※ 전월실적 40만원 이상 시 제공되며 적립한도는 없습니다.
※ 카드사용 등록 일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는 전월실적 미달시에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고향사랑 우대 서비스

고향사랑 우대서비스는 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 중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기부)한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주말(토·일요일) 기부지역 광역시·도 가맹점 및 전국 농협판매장/농협운영 주유소 0.7% NH포인트 추가적립**

※ 전월실적 40만원 이상 시 제공되며 월 통합 적립한도 1만포인트 입니다.

연회비 : zgm. 고향으로 카드[국내전용 1만 2천원, 국내·외겸용 MASTER 1만 2천원]


card.nonghyup.com

카드고객행복센터 1644-4000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3-C1-03454호
(2023.04.05~2024.04.04)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 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 (2개월)',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적용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만기 다가오는 '고금리 단기예금' 금리노마드족 저축은행 예의주시

저축銀 정기예금 금리인상 속도 중소형사 중심 자금수신경쟁 예고 내달 고금리 상품 재등장 가능성 "단기 보다 중장기 상품 늘릴 듯"

다음달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이 또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자금조달 경쟁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시한 고금리 단기예금(6개월)의 만기도래를 앞두고 있어서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곳 저축은행 정기예금(1년물)의 평균 금리는 연 3.95%다. 이달 들어 0.08%포인트(p)올랐다. 지난해 4분기 조달 경쟁 여파로 수신 금리 인상에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는 의견이다.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내달 고금리 예금 상품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예금금리는 연 4.5%를 지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돌파하는 수준의 예금 상품 등장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대형사 중에는 폐퍼저축은행의 '폐퍼스회전정기예금' 및 '회전정기예금'이 연 4.5%를 제공한다.

이같은 업계 전망의 배경에는 고금리 단기예금의 만기 도래가 자리 잡고 있다. 고금리 예금이 빠져나간 만큼 자금수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권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 단기예금에 연 6%의 금리를 적용했다. 당시 전국 저축은행 단기예금의 평균금리는 연 4.2%까지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고금리 예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OK·웰컴·폐퍼·상상인저축은행 등 대형사들이 연 4.4~4.5%의 예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서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 인지도가 낮은 중소형사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 금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안전한 방법으로 뭉치돈을 운용하고 싶은 '금리 노마드족'이라면 내달 저축은행중앙회 예금 조회를 수시로 점검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6개월짜리 단기예금에 고금리 적용 여부에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통상 금융사는 3년 이상의 중장기 예금 비중을 늘리는 게 운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1년물 및 2~3년물 예금

금리 인상을 예측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 예금상품 판매는 소비자에게 대출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사용처가 마땅치 않은 만큼 중장기 예금 판매를 늘릴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수준의 정기 예금은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당국의 엄포에 시중은행 또한 고금리 예금 출시를 꺼리고 있다. 통상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1~2%p 높은 예금 금리 격차를 유지한다. 시중은행이 조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저축은행 또한 공격적인 조달에 나설 확률은 드물다. 저축은행의 리테일(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주춤하고 있어서다.

조달 경쟁이 저축은행권 내부의 '각축전'이 예상돼 금리는 연 5% 초반에 그칠 것이라 분석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1분기 저축은행권의 적자가 예고되는 만큼 공격적인 자금 조달은 어렵지만 게릴라 마케팅(Guerrilla Marketing)식 예금이 등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방성빈 BNK 부산은행장(오른쪽 두번째)이 본점 1층 로비의 열린 휴식공간인 'B:FOREST'에서 직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BNK부산은행

방성빈 부산은행장, 기업문화 혁신 앞장

찾아가는 결재, 전자보고 등 조직내 소통·유연성 강화 결실

BNK부산은행은 방성빈 은행장이 취임 후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기업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초 부산은행 제14대 은행장으로 취임한 방 은행장은 취임사에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부산은행은 취임 2개월이 지난 지금 방 은행장의 노력이 조직 내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은행장이 본부 부서를 직접 방문해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담당자와 소통하고 그 자리에서 결재하는 '찾아가는 결재'와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소에 구애 없이 보고받는 '전자보고'가 있다.

찾아가는 결재와 전자 보고는 조직내 소통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 은행장의 노력에서 시작됐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회의·음주문화 개선 ▲ESG 실천 문화 확대 ▲도전하는 문화 확산 등 바른 기업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하는 소통경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 은행장은 지난 19일 부산은행 본점 1층 로비의 열린 휴식 공간인 'B:FOREST'에서 '환경을 위해 애쓰지(ESG) 날'을 맞아 직원들과 함께 팀블러를 이용해 음료를 구입하는 행사에 동참하기도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블라인드 채용 시범 운영... 인지도 아닌 양질 일자리 제공

제1차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참여 구인기업 채용 지원금 제공

'2023 제1차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22일과 23일 이틀간 개최된다.

KB국민은행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2023 제1차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KB우수기업, 유관기관의 우수 회원사 및 대기업 협력사와 코스닥 상장사 등 240여개의 구인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들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블라인드 채용관은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자는 기업의 인지도가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인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아닌 직무, 복지, 성장가능성 등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없이 구인기업을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박람회에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관 ▲박람회 참가기업의 채용설명회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된 취업특강·설명회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직업심리검사관 ▲군간부 채용관 ▲직업체험관 ▲창업 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KB소호 컨설팅관을 운영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구인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 등 금융비용 부담해택을 제공한다. 정규직원 채용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해 기업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채용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는 최대 1.3%포인트(p)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구직자 600명은 면접지원금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20만명 개인 신용정보 팔아치운 대부중개 플랫폼, 경찰 수사의뢰

금감원, IT전문가 투입 합동점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무단 유출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고객이 등록한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대부중개업체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인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결과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되는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대부중개는 개인 신용정보(약 20만명 추정)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 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건별로 1000원~5000원)한 사실이 발견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요외 조치했다.

또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부과 처분할 예정이며,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

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요외할 계획이다.

D·E·F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합동 점검받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대부중개 플랫폼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의 관리를 지도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IT전문가를 투입해 대부중개플랫폼의 DB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내역, 침해사고 발생여부를 조사하는 등 IT검사기법을 활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동 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라며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수협은행, ESG경영 일환 해양환경 보호예금 선배

Sh해양플라스틱제로! 법인MMDA 가입만으로 친환경 실천기업 인정

Sh수협은행이 법인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상품을 출시했다.

Sh수협은행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해양환경보전 공익상품인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 법인MMDA'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법인전용 수시입출금식

통장이다.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전액 수협은행 부담으로 해양환경보전과 ESG사업 지원기금으로 출연한다.

상품은 예치금액에 따라 이자를 차등지급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목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활용 가치가 높다는 설명이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면 판매 한도 없이 가입 가능하다. 상품 가입만으로도 해양환경보전사업 간접 지원 등 친환경 실천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도입 등 사회·경제 전반에서 착한 기업을 우대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수협은행은 ESG 측면에서 해양환경 공익상품 고유 브랜드 구축을 목표로 기업고객의 가치제고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산 기자

현대차, 임단협 전문... '정년연장·성과급' 살바싸움 예고

노조, 24일부터 최종 요구안 확정
다음달 10일 노사 상견례 시작
최대실적에 치열한 신경전 예상



현대차 양재 사옥.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협상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한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4일부터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측에 제시할 최종 요구안을 확정 짓는다. 올해 현대차 임단협의 주요 쟁점은 성과급 인상과 정년 연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4일 울산에서 대의원 대회를 진행, 사측에 제시할 임단협 요구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하면 다음달 10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단협에 돌입한다.

노조의 요구안은 어느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다.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지난 8일 각 지부 및 지역위원회의 정책·기획담당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임단협 요구안 초안을 마

련했다. 임금협상안은 기본급 18만원 이상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이다. 단체협상안에는 정년 연장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무분규협상 타결을 이뤘지만 올해 현대차 노사 임단협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노사간 정년 연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노조는 조합원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수령 직전 해인 64세까지 회사에 재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기존 60세에서 정년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사측은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노조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최근 현대차 노조가 간부들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준비를 위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6.9%가 정년 연장을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 의제로 답했다. 특히 올해 단체협상에서 파업해서라도 노동 요구안을 쟁취해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51%)을 넘었다.

만약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회사는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차는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되며 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등 국내 공장들은 올해 1분기 원래 생산능력(42만 7081대)보다 더 많은 48만 2326대를 생산하는 등 공장 가동률 높이에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신형 쏘나타 디 엡지는 당장 계약해도 인도받기

까지 최대 10개월 가량 소요되며, 신형 그랜저의 경우 트림별로 각각 4개월과 6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올해는 난항이 예상된다"라면서도 "올해 초 특별 성과급 지급 등 회사 성과를 공유한 만큼 노사가 올해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반도체 공급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요인에도 최대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올해 초 전 직원에게 1인당 400만원의 성과급과 일정량의 주식을 지급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해양보호 '미세플라스틱 저감' 실천

한국물포럼과 업무협약 체결
'미세플라스틱 케어' 세탁 코스 독려 등
해양 생태계 보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김영락 부사장(오른쪽)과 한국물포럼 박경호 총재.

LG전자가 한국물포럼과 해양 생태계 사수를 위한 실용적인 해법 마련에 나선다.

LG전자는 한국물포럼과 22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물포럼은 글로벌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활동과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구다.

LG전자는 한국물포럼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고객 참여 프로세스와 환경 관련 연구개발 협업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한국물포럼이 주관하는 행사와 제작 콘텐츠에서 LG전자가 개발한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전 세계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35% 수준이다. LG전자가 개발한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는 트럼 세탁기만의 차별화된 6모션으로 섬세한 세탁을 구현해 세탁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

탁 과정에서 옷감의 마찰로 생기는 미세플라스틱을 최대 70% 감소시킨다.

LG전자는 지난월부터 UP가전 트럼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를 추가하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 공개 한달 여 만에 다운로드 건수가 2000건에 달할 정도로 환경보호에 동참하길 원하는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LG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를 알리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내달부터 '미세플라스틱 케어 챌린지'를 진행한다. 챌린지 기간 내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를 사용한 횟수를 기준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또

참여자 전원에게 제공하는 LG 씬큐(LG ThinQ) 앱 리워드와 동일한 금액을 한국물포럼에 전달해 필요한 곳에 기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LG전자는 최근 개발한 수용성 유리파우더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수용성 유리파우더는 물에 녹으면 무기질 이온 상태로 변하는 소재로, 해양 생태계 복원과 적조현상을 줄이는 황토 대안으로 쓸 수 있다.

앞서 LG전자는 1996년 유리 파우더 관련 연구를 시작해 2013년 북미에 출시된 오븐에 자체 개발한 기능성 유리 파우더를 첫 적용했다.

오븐 내부의 금속 표면을 기능성 유리 파우더로 코팅해 내부 세척을 간편하게 하는 '이지클린' 기능을 탄생시켰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수용성 유리 파우더는 물론 항균 작용을 하는 '항균 유리 파우더' 등을 만들어냈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김영락 부사장은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뿐만 아니라 고객이 일상생활에서 가전을 사용하면서 LG전자의 ESG 비전인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 실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 엠블럼 공개

유니폼과 원형·방패형 엠블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 엠블럼&유니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사업의 미래 비전을 담은 '2023 누리호 엠블럼' 2종과 이를 적용한 유니폼을 22일 공개했다. 24일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고, 미지의 영역인 우주에 대한 한화의 도전정신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공개한 엠블럼은 원형과 방패형의 총 두가지다. 원형은 우주사업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순환을 상징한다. 가운데를 관통하는 누리호는 지구와 우주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빛나는 별들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위해 헌신하는 연구원과 엔지니어 등을 의미한다.

방패형은 전장에서 앞장 선 방패를 모티브로 했다. 어렵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우주산업 분야에 앞장서 도전하겠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의지를 시각화한 것으로 누리호와 함께 미래 탐사 목표인 달과 화성을 배치했고, 우주 탐사의 열정과 기술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겠다는 의미로 헤리티지 감성을 표현했다.

엠블럼에 적용된 유니폼은 2018년 평

창올림픽 의상 감독을 맡았던 디자이너인 송자인 씨와 함께 제작했다. 빛나는 별을 상징하는 은색을 바탕으로 비상하는 발사체의 형상을 날렵하고 역동감 있게 깃과 포켓, 지퍼 등에 적용했다. 실제 옷을 착용하는 임직원들의 활동성과 통기성을 감안해 뒷면을 절개하는 등 실용성도 고려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현장을 비롯한 주요 우주 사업 이벤트에서 엠블럼과 유니폼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인 우주 분야에 도전하겠다는 한화의 의지를 상징물을 통해 국민과 공유하고 싶다"며 "많은 국민이 누리호와 우주에 관심을 갖도록 굿즈(기념품) 형태로 제작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국타이어, 고성능 전기차 타이어 '아이온 에보' 출시

배터리 무게 대응 EV 형상 기술 적용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고성능 전기차 전용 타이어인 '아이온 에보(iON evo)'와 '아이온 에보 SUV'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출시되는 고성능 전기차는 순간 출력(토크)이 내연기관 스포츠카를 웃돌아 본연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전용 타이어가 필요하다. 이번에 선보

인 아이온 에보는 한국타이어의 '아이온 퍼포먼스 테크놀로지'가 탑재돼 뛰어난 접지력과 핸들링, 제동력은 물론 저소음, 전비, 마일리지(연비) 등을 고려해 균형 잡힌 성능을 갖추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전기차의 강력한 순간 토크와 배터리 무게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EV 형상 기술'을 적용해 코너링 강성을 최대 10% 향상시켰다.

또 실내 소음은 최대 18%까지 낮추며 전기차에 최적화된 저소음 환경을



한국타이어 고성능 전기차 전용 퍼포먼스 제품 아이온 에보.

고현했다.

/양성운 기자

5가지 분산된 앱 한 곳에 모아 출시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22일 통합 고객 서비스 앱 'MY GENESIS(마이 제네시스)'를 출시했다.

마이 제네시스는 고객들에게 편리함과 차별화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존 5개로 분리된 앱의 기능을 통합해 하나의 앱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든 새로운 플랫폼이다.

제네시스는 ▲충전, 정비, 세차 등 차량 관리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MY GENESIS' ▲차량 제어와 상태 확인이 가능한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별도의 키 없이도 차량 시동 및 주행이 가능한 '제네시스 디지털 키' ▲차량과 앱을 연동해 제휴처 상품 결제 및 포인트 관리가 가능한 '제네시스 카페이' ▲빌트인 캠을 통해 차량 녹화 영상을 제공하는 '제네시스 빌트인 캠' 등 5가지 앱에 분산되어 있던 기능을 한 곳에 모아 통합 앱으로 새롭게 출시했다.

이에 따라 제네시스 고객들은 차량 구매 정보부터 차량 관리, 차량 제어, 편의 서비스 등 제네시스와 관련된 기능들을 하나의 앱으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성운 기자

'마이 제네시스' 통합 고객서비스 앱 선포

이통사, 20대부터 시니어 겨냥 '맞춤 요금제' 늘려 선택권 강화

청년 요금제, 편리·혜택 ↑
시니어 용 등 64종→124종
추가 가입자 위해 라인업 갖춰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 단일요금제 중심에서 올해 사용자 맞춤형 요금제로 선화하면서, 20대에서 시니어 층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요금제 60종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통사들은 20대를 겨냥한 청년요금제를 조만간 신규로 내놓고, 미래의 주요 고객이 될 20대 청년층에 대거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올해 이통사들은 3~4종의 5G 요금제를 출시하고, 시니어요금제는 물론 구직자, 아동·육아 가구 대상 혜택 등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이는 각 연령층을 겨냥해 이용자가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한 맞춤형 요금제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청년 요금제는 이통사에서 강한 니즈를 갖고 출시한 상품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 요금제 '너도나도'

SKT는 오는 6월 1일, 만 34세 이하의 5G 고객을 위한 '0 청년 요금제' 7종을 내놓는다. 또 7월 1일에는 '0 청년 맞춤형 요금제' 4종도 출시한다. 청년 고객이 데이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20~50% 확대 제공한다.

월 요금 수준에 관계없이 0 청년 요금제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커피, 영화, 로밍 요금 할인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 1일 '0 청년 요금제' 공식 출시를 앞두고, 선착순 30

만명을 대상으로 '100% 당점 세계 화폐 랜덤 뽑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KT는 데이터 이용량이 많고 콘텐츠 수요가 활발한 20대 고객의 특성에 맞춰 데이터 제공량은 2배로 늘리고, 티빙 구독료 50% 할인 등 혜택이 강화된 'Y덤'을 6월 2일 런칭한다.

'Y덤'의 가장 큰 특징은 전용요금제 가입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했다. 만 29세 이하 고객이 KT 5G 요금제에 가입하기만 하면 'Y'덤이 자동 적용된다. 새로운 'Y덤'은 5G 요금제 15종을 새롭게 제공할 계획으로, 기존에 운영중인 요금제 5종을 포함해 20종의 요금을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9세 이하 고객들에게 혜택을 늘리기 위해 7월 중 '5G 청년 요금제'를 신설한다. 5G 청년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기존 요금제 대비 최대 6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7월 중 20대 고객에게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5G 청년 다이렉트 요금제'를 선보인다.

◆ 요금제 124종으로 증가...2배 '경중'

이통사들이 5G 요금제와 청년요금제, 시니어요금제를 출시함으로써 요금제는 기존 64종에서 124종까지 약 2배 정도로 경중 증가했다.

SKT는 기존에 20종의 요금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45종으로 요금제가 늘었고, KT는 기존 22종에서 34종으로, LG유플러스는 22종에서 45종까지 늘어났다.

SKT는 기존 요금제인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5만 9000원의 요금제를 기본으로 데이터가 더 필요한 경우, 13

GB는 3000원, 30GB는 5000원, 50GB는 7000원, 75GB는 9000원 요금제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가량 5000원을 추가하면 기존 24GB에다 30GB를 더 해 54GB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KT는 또 시니어 고객을 위한 신규 요금제 3종을 지난 3월 30일 선보였다.

김지형SK텔레콤통합마케팅전략담당은 “새로 출시된 5G 신규요금제 3종은 고객 선택권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5G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임팩트는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5G 시장이 성숙기 진입한 상황에서 추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라인업을 갖춰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전략”이라 말했다.

KT는 지난해 출시된 5G 중간요금제에 이어 오는 6월 2일부터 심플50GB, 심플70GB, 심플90GB 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또 지난 12일부터 시니어 고객 전용 요금제도 출시했는데, 연령 및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종류를 4종으로 세분화시켰다.

KT 관계자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 5G 요금제 출시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를 크게 늘렸다”며 “OTT와 콘텐츠 할인 등 고객 맞춤 혜택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에 6~7만원 대 중간요금제 4종과 시니어 요금제 3종을 선보였다. 또 아동·육아 가구에 데이터 바우처를 최대 24개월 지원하며, 10개의 구직자의 취업 및 고용 사이트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로레이팅'도 운영한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미국 애리조나주에 설치된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고효율 태양광 모듈의 모습.

HD현대에너지솔루션, 아프리카서 첫 수주

포르투갈 건설사 MCA와 22MW 태양광 모듈 공급 체결
향후 300MW급 입찰 계획

HD현대의 태양광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첫 수주를 이뤄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최근 포르투갈 건설업체 MCA와 22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500와트(W)급 고효율 모듈 제품을 올해 8월까지 공급하고, MCA는 해당 제품을 앙골라 정부가 발주한 바이룬도 및 쿠키토 지역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할 예정이다. 22MW는 앙골라 지역 주민 14만명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다.

특히 해당 모듈은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까지도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어 일반 모듈 대비 30% 이상 발전량을 높

였다. 또 한 장의 셀을 2개로 분할해서 연결하는 '하프컷' 기술이 적용돼 전류 손실을 낮추고 발전 효율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됐다. 향후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상반기부터 앙골라에서 진행될 300MW급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의 입찰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은 전세계 태양광 자원의 60%를 가지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 용량은 전세계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향후 아프리카의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태양광발전소에도 고효율, 고품질 제품을 공급해 시장 내 영향력을 넓혀갈 것”이라며 “기존 주력 시장인 미주, 유럽뿐만 아니라 앙골라,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신흥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LG U+, '스포키' 이용자 1500만명 돌파

스포츠 팬들 호응... 7개월 만의 성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선보인 통합 스포츠 커뮤니티 플랫폼 '스포키'가 스포츠 팬들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출시 7개월만에 누적 이용자 1500만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스포키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 당구 등 스포츠 종목별 국내외 다양한 리그의 최신 뉴스, 인기 유튜브와 방송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모든 콘텐츠에는 이용자간 댓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스포키톡' 기능도 지원된다. U+3.0 대표적인 놀이 플랫폼인 스포키는 스포츠 시즌과 비시즌 관계없



지난 10월 선보인 LG유플러스 통합 스포츠 커뮤니티 플랫폼 '스포키'가 출시 7개월만에 누적 이용자 1500만명을 돌파했다. /LG유플러스

이 고객에 1년 내내 즐길거리를 제공, 18일 기준 출시 7개월만에 누적 이용자 1572만명을 기록했다. 4월 월간 이용자수(MAU)는 415만명을 달성했으며, 4월 26일에는 일일 최고 방문고객 수 54만명을 기록했다. /채윤정 기자

친구와 2750원씩, 같이 넷플릭스 본다

광고형 멤버십, 요금은 그대로
풀HD·동시 접속 인원 2명 개편
4분 광고·일부 시청 불가 차이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도 광고형 멤버십 최대 화질을 풀HD(1080p)로 높이고 동시 접속 가능 인원을 2명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가 지난달 광고형 멤버십을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약 한 달만에 우리나라에도 적용됐다. 월 요금 5500원인 넷플릭스 광고형 멤버십 계정을 친구 1명과 2750원씩 분담해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광고 요금제인 '광고형 베이식'을 '광고형 스탠다드'로 변경했다. 월 요금 5500원은 그대로지만 동시 접속 가능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영상 화질도 720p에서 1080p로 올렸다. 기존 스탠다드 멤버십(월 1만3500원)보다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하되 시간당 약 4분의 광고를 시청해야 한다는 점, 라이선스 제한으로 일부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다는 점만 차이를 뒀다.

〈넷플릭스 스트리밍 멤버십 변경〉

구분	내용	요금
광고형 스탠다드	풀 HD(1080p)로 매우 좋은 화질 제공.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또는 TV로 시청. 대부분의 시리즈와 영화를 이용할 수 있지만, 라이선스 제한으로 인해 시청할 수 없는 콘텐츠도 일부 있음. 저장 기능 불포함.	월 5500원
베이식	HD(720p)로 좋은 화질 제공.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또는 TV로 광고 없이 시청. 1개 디바이스에 저장 가능.	월 9500원
스탠다드	풀 HD(1080p)로 매우 좋은 화질 제공.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또는 TV로 광고 없이 시청. 2개 디바이스에 저장 가능.	월 13500원
프리미엄	UHD(4K) 및 HDR로 가장 좋은 화질 제공. 공간 음향 지원.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또는 TV로 광고 없이 시청. 6개 디바이스에 저장 가능.	월 17000원

넷플릭스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1분기 실적 발표 후 주주서한에서 “광고 요금제를 더욱 많은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이게 할 것”이라며 광고형 멤버십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넷플릭스는 ‘광고형 스탠다드’를 스페인과 캐나다에 우선 적용했었고, 한국, 미국, 호주 등 광고형 멤버십 시행 중인 나머지 10개국에는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다.

넷플릭스의 이번 멤버십 개편에 따라 공유 계정을 쓰던 국내 일부 이용자

는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넷플릭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4명에서 월 4250원씩 부담하면 넷플릭스 프리미엄 멤버십(월 요금 1만 7000원) 계정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광고형 스탠다드’로 개편되면서 2명에서 월 5500원에 넷플릭스 콘텐츠를 이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 경우 1인당 2750원씩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광고를 시청해야 한다는 점과 영상 화질이 풀HD(1080p)라는 점 등 불편은 일부 감수해야 한다. /채윤정 기자

“내 사진, 네이버웹툰처럼 만들어요”

AI 기술·콘텐츠 결합한 '툰필터'
전체 사용자 중 해외 이용자 80%

네이버웹툰이 AI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해 선보인 '툰필터'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툰필터는 원하는 사진을 좋아하는 웹툰 작품의 그림체로 변환시킬 수 있는 서비스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에 네이버웹툰만의 재미 요소를 추가했다는 차별성이 있다.

네이버웹툰은 툰필터 베타 서비스가 출시 일주일 만에 2천만장 이상의 변환된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22일 밝혔다.

툰필터는 좋아하는 웹툰 작가가 나

에게 직접 그림을 그려주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12일 출시한 베타 서비스에는 기획 취지에 공감하고 그림체 제공에 동의한 창작자 10명의 작품 10편의 그림체를 시범 적용했다.

툰필터는 한국어로만 이용 가능하지만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해외 웹툰 팬들에게도 알려지며 한 때 모든 종류의 필터가 접속 대기 1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폭발적인 이용자 유입을 보였다. 현재까지 누적 전체 이용자 중 해외 이용자가 80% 이상이며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순으로 이용자 비중이 높다.

/최빛나 기자 vitna@

우아하고 세련된 직사각형 케이스에
담긴새로운 작품 레이몬드 웨일
토카타컬렉션을 만나보세요.



RAYMOND WEIL

GENEVE

www.raymondweil-korea.com
레이몬드웨일 부티크 청담 1544-7593

“금리인하 기대… 채권 막차타자” 개미, 지난달 4조2479억 사들여

개인 채권투자 월별기준 역대최대
올 매수총액 13.7조… 4배 상승
장기채권 비중 4%→19% 급증

기준금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관측과 함께 ‘채권 막차’에 줄을 서는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주목되고 있던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 채권 투자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다.

22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공개한 지난달 개인 채권투자 규모는 4조2479억 원으로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올해 개인이 순매수한 총 금액은 13조6724억 원으로 약 14조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동기 3조419억 원 대비 4배 이상 오른 규모다.

국내 증시의 부진과 함께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대된 모습이다. 통상적으로 채권가격은 금리 상승 시 떨어지고, 금

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다시 오르게 된다.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겹치면서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의 채권 매수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최근 채권 투자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고객이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채권을 시장 상황에 맞춰 빠르게 공급하고 관련 상품에 대한 일선 직원 교육을 확대하는 등 개인 투자자의 관심 증가에 대응해 시장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대거 유입과 함께 올해 소매채권 판매액은 약 13조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채권 규모도 남다르다. 지난해 동월에는 개인 순매수 규모 1000억 원이 넘는 채권은 하나도 없었던 반면, 올해는 5개나 된다. 최상위 종목 간 순매수 금액 차이도 지난해에는 608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3597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본드웹에 따르면 이 중 개인 투자자

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채권은 ‘국채 20-2’로, 발행 만기 30년, 잔존 만기 27년짜리 초장기 채권이다. 이어 2위에도 발행 만기 20년, 잔존 만기 16년인 초장기채권 ‘국채 19-6’가 이름을 올렸다. 다만 국고채 등 장기채권 ETF에 관심이 쏠리면서 레버리지·인버스 ETF 상품은 시들해진 양상을 보였다.

특히 장기채권의 수익률이 주목되면서 한투증권의 채권 판매액 중 만기 5년 이상 장기채 비중은 연초 4%에서 지난 3월 말 19%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채권 상품은 절반을 넘긴 6개이며, 이 가운데 4개는 장기채 ETF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 기조를 종료할 것이란 신호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채권투자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며 “낮아진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 매력, 또는 중장기적으로 자본차익을 기대하는 개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투시도.

/롯데건설

롯데건설, 청량리 8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아파트 6개동 610세대 1728억 규모

롯데건설이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청량리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대를 연면적 8만9299.67㎡, 지하3층~지상24층 아파트 6개동, 총 610세대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728억 원이다.

롯데건설은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랜드마크동을 계획했다. 다양한 스카이라인, 커튼월 룩, 경관조명을 활용한 축벽 특화 등을 통해 아파트 외관 디자인에 럭셔리한 감성을 더할 계획이다.

또한, 전 세대 100% 남향 배치 및 통

경축(조망 확보 공간), 바람길 확보를 통해 단지의 개방감 또한 극대화할 예정이다.

청량리 제8구역은 지하철1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청량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삼육초, 청량중, 청량고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학군도 우수한 편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담은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면서 “믿어주시는 조합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에 부응할 만한 청량리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연질캡슐 점유율 1위… 건기식 871종에 적용

株라쿨라의 종목 알피바이오

흑삼·연질캡슐 기술 건기식 시장 공략
고객사 250곳 이상… 수주잔고 550억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은 알피바이오에 대해 흑삼을 대체할 ‘흑삼’과 ‘연질캡슐’ 기술로 건기식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적정 주가는 1만7000원을 제시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2년에 가장 많이 판매된 기능성 원료는 흑삼으로 1조4000억 원 규모로 압도적이다.

알피바이오의 흑삼 시장을 대체할 개별인정원료(식약처장이 개별적 인정한 원료로 인정일로부터 6년 독점 생산 가능)인 ‘흑삼 추출물’ 제조 기술을 농촌진흥청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았다. 흑삼 추출물의 주성분은 ‘진세노사이드’로 흑삼 대비 최대 13배 함유돼 있다.

알피바이오의 2016년 설립해 다양한 연질캡슐 제조 기술을 가진(건기식) ODM·OEM 전문기업이며, 2022년 9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연질캡슐이란 오일 등 내용물이 젤라틴 등으로 이뤄진 캡슐에 충전되는 제형을 말한다. 동사의 연질캡슐은 대응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셀트리온

등 일반의약품 264종, 종근당건강, CJ 웰케어, 휴온스 등 건기식 871종에 적용되고 있다.

우휘량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동사는 국내 일반의약품 연질캡슐 시장 점유율 1위로 국내 대형 제약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사(250개 이상)를 확보하고 있다”며 “각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10%가 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고객사 주문 감소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고 분석했다.

2023년 매출비중은 일반의약품 45.1%, 건강기능식품 54.7%, 기타 0.2%로 추정됐다. 현재 일반의약품 수주 잔고는 약 550억 원이며 2024년 4월까지 수주 생산능력(CAPA)이 모두 확보된 상태다.

신하은 기자

전월세 매물광고에 관리비 게시 의무화

국토부, 임차인 알 권리 보장 일환
내달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앞으로 월세보다 높은 원룸·오피스텔 관리비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원룸과 오피스텔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 부과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

정액관리비에 대한선 부과 내용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도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용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항목별 관리비 내용을 작성하도록 개선,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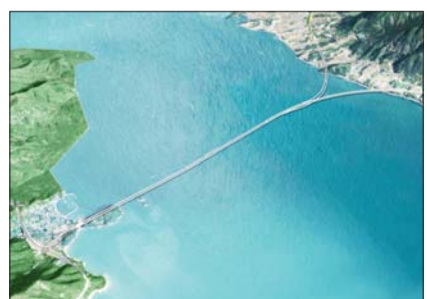
DL이앤씨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수주

6974억 규모 총 8.09km 4차로 신설

DL이앤씨가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를 수주했다.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의 실시 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서를 수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 여수 신덕동과 경남 남해 서면을 연결하는 총 8.09km의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6974억원으로 해저 분기터널 구간(5.76km)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2031년 준공 시 남해~여수 간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3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위치도. /DL이앤씨

DL이앤씨는 입찰 참여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터널 본선 외에 남해군 북측으로 연결로를 신설한 차별화된 설계안을 제안해 가장 높은 기술점수를 받았다.

해저 분기터널 설계를 통해 터널 시공 막장을 기존 4개에서 8개로 2배 확장했다. 막장이 늘어나면 동시에 시공할 수

있는 구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기를 13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 연결로 터널도 많아져 유사시 대피와 구난, 배연성능도 2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해저터널의 내화 성능을 높이고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단열·내화 콘크리트도 적용한다. 기존 콘크리트 대비 열전도도를 40% 감소시킨 고성능 콘크리트를 적용해 구조물의 안전성 극대화를 이뤄낼 것으로 예상된다.

권수영 DL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은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통해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토스증권, 전 직군서 50명 규모 공개채용

내달 11일까지 3주간 접수

토스증권이 출범 후 처음으로 단독 공채를 시작한다. 토스증권은 내달 11일까지 3주간 전 직군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개채용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토스증권이 희망하는 채용 인력은 약 50명 수준이다.

2021년 3월 공식 출범한 토스증권은 5월 현재 가입자 500만 명, 해외주식 거래 시장점유율 20%, 적립식 주식투자 ‘주식 모으기’ 이용자 60만 명 달성 등 지난 2년간 함께 도달하기 힘든 성과를 보여왔다. 그 결과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출범 3년차만에 손익분기 달성이 가

시화되고 있다.

토스증권은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 회사의 성장속도를 높이고 향후 비즈니스 확장을 준비할 계획이다.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는 WTS(웹 주식거래 시스템), 해외 옵션 서비스와 함께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 디자인, 컴플라이언스, 전략기획, 홍보, 재무 등 전 직군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한다.

전 직군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공개 채용에서 지원 자격으로 요구하는 최소 인정경력은 별도로 없으며, 각 직무에 맞는 경험과 역량이 있다면 지원 가능하다.

/신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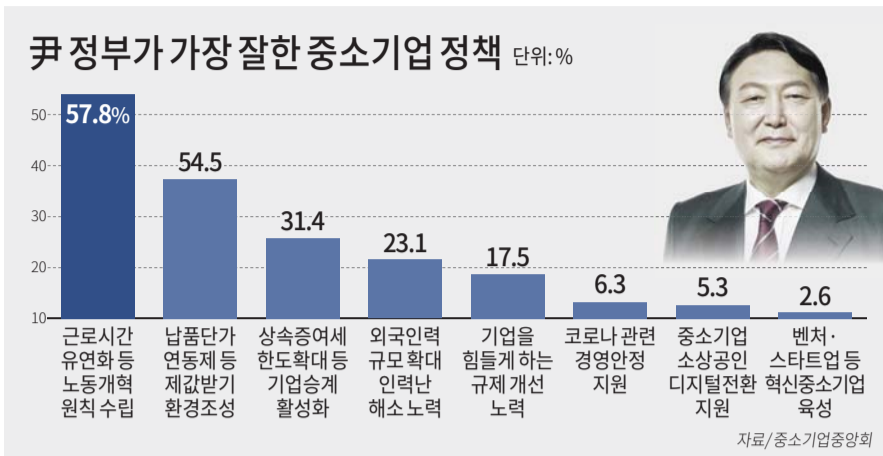
중소 78%, “尹정부 정책 만족”... 1위로 ‘노동개혁’ 꼽아

중기중앙회, 정부 정책 만족도 조사 ‘근로시간 유연화 원칙 수립’ 최고 평가 최우선·중점 추진 과제도 ‘노동 정책’

중소기업 10곳 중 8곳 가량(77.6%)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동개혁 관련 정책에 가장 만족했으며, 최우선 해결과제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도 노동 분야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 과제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6.4%, ‘만족’으



로 답한 기업은 51.2%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 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

(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도 ‘경직된 노동시장’(40.3%)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18.5%), ‘과도한 규제’(1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윤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 역시 응답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애로(복수응답)는 ‘인력난 심화’(48.5%)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45.9%), ‘원자재 값 인상’(4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입사원’ 행보에 대해 중소기업의 84.8%가 긍정

적으로 평가(매우 긍정적 50.5%+긍정적 34.3%)했다.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의 순으로 긍정 평가 이유라고 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기업이 윈윈으로 뭉쳐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르노코리아, 부산지역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나선다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에 투자기로 부산공장 내 에코 클러스터 센터 조성 상생 협력 강화 및 인력 양성 등 추진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부산지역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센터를 세운다.

르노코리아는 22일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부울경지역대학산학협력단장협의회,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부산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학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위한 르노코리아, 부산시 및 관련 기관들의 세부 사항 이행을 위한 각각의 역할도 이번 업무협약에 포함됐다.

르노코리아는 부산공장 내 ‘에코 클러스터 센터’를 신설하고 지역 대학, 연구기관 및 자동차 부품기업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상생과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



김형준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왼쪽부터), 이임건 부울경지역대학산학협력단장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 오린테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2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학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르노코리아차

다. 부산시는 미래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 양성 및 관련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각종 행정 지원 등 미래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은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업단지 구축 및

원활한 부품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부울경지역대학산학협력단장협의회는 맞춤형 교과를 신설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차 산업분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향후 에코 클러스터 센터 운영을 통해 미래차 산업 분야

의 산학연 협력기반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협력 기반을 구축해 갈 예정이다.

르노코리아스τέ판 드블레즈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관학이 협력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에코 클러스터 센터가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과 더불어 부산 지역의 성공적인 미래 친환경차 산업 전환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향후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미래 친환경차 산업 관련 후속 지원 방안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의 대표기업으로서 르노코리아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앞으로도 부산의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르노코리아는 미래 친환경차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2024년 출시 예정인 하이브리드 중형 SUV 신차 개발과 생산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 관련 사이버 범죄 활동 급증.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 시그널 공개 업무용 이메일 공격 하루 평균 15.6만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간 탐지된 업무용 이메일 침해(BEC) 시도가 3500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5만6000건의 침해 시도가 발생한 셈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2일 사이버 위협 보고서 ‘사이버 시그널’ 에디션을 공개하고 이같은 BEC 공격 동향을 발표했다.

MS의 위협 인텔리전스 디지털범죄팀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500만건의 업무용 이메일 침해 시도를 탐지하고 조사했다. 또한 업무용 이메일을 노리는 ‘서비스형 사이버범죄’는 2019년 대비 38% 증가했다.

BEC 공격자들은 매일 쏟아지는 이메일 트래픽과 메시지를 악용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금융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죄자의 사기 송금에 활용되는 자금 운반책 계좌로 무의식적인 송금을 하도록 유도한다.

인증요청 메시지를 스푸핑하거나 개인이나 회사를 사칭하는 것도 일반적인 수법이다.

MS는 기업이 BEC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AI 기능이 탑재된 이메일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면, 고급 피싱 방지, 의심스러운 포워딩 탐지 등의 기능을 통해 방어를 강화할 수 있다. 이메일 및 생성성 클라우드 앱은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앙화된 보안 정책 관리 등의 이점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성수기 피해 ‘이른 여름휴가족’ 늘어난다 구글플레이, 앱·게임 개발사 100곳 지원

알뜰한 여행 떠나는 스마트 소비자

비용을 아끼거나 번잡함을 피해 일찍 여름휴가를 떠나는 이른바 ‘이른 여름휴가족’이 올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와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알뜰하게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스마트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 떠나는 여름 휴가족’ 트렌드는 코로나 이전부터 꾸준히 확산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집계한 우리나라 국민의 출국자수 통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비수기로 꼽히던 6월 출국자 수가 큰 증가세를 보였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9년 5개년 간 6월 중 우리나라 국민의 월별 출국자수는 연평균 12.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연도별 연평균 증가율인 8.3%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대표적인 성수기 기간인 7월(9.5%)과 8월(5.8%)의 증가율 보다도 훨씬 높았다.

이 같은 트렌드는 지난 4월 제주항공이 자사 SNS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 중의 42%가 여름 성수기인 7~8월을 피해 5·6·9·10월에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성수기를 피해 휴가를 떠나겠다고 응답한 52%가 ‘여름 성수기(7~8월)에는 여행 비용이 비싸서’ 해당 시기를 선택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6월 휴가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 베트남 호찌민, 일본 오이타 노선에 대한 항공권 프로모션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작년보다 20개사 늘려 역대 최대

구글플레이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국내 중소기업 개발사 및 스타트업 상생 지원 프로그램 ‘창구 프로그램 5기’에 참여할 100개사를 선정하고 개발사 지원 여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선정된 개발사 가운데 개인화 뷰티 큐레이션 서비스 ‘잼페이스’, 영토 확장 캐주얼 게임 ‘아이들킹덤즈’, 반려식물 종합 솔루션 ‘그루우’가 톱3로 이름을 올렸다. 잼페이스와 그루우는 AI기반의 스타트업이다.

창구 프로그램은 창업의 ‘창’과 구글플레이의 ‘구’ 앞자에서 이름을 따왔다. 올해 5기를 맞아 작년보다 20개사가 추가된 역대 최대 규모의 100개 개발사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콘텐츠완성

도, 혁신성, 해외 진출 가능성이었다. 서류 평가, 앱 콘텐츠 시연 평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올해는 게임, 웰니스, 헬스케어, 예술, P2P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 개발사가 참여한다.

창구 프로그램은 2019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360개사가 참여했다. 3기까지 누적 매출이 62% 증가하고 유치 투자액이 2000억원을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구글플레이는 창구 프로그램 5기에 선정된 100개 개발사에게 사업 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캠페인 운영을 지원하는 마케팅·홍보와 함께 창업 성장지원 세미나, UA 마케팅 광고 수익화를 위한 일대일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9월께 무역흑자… 반도체 외 주력산업 대부분 회복 예상”

정유·석유화학·전자 분야 기대
자동차 수출, 하반기 속도 둔화
美서 전기차 등 사상 최대 호황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9일 서울 성수동 로봇카페 북북에서 열린 ‘로봇공감 토크콘서트 로.그.인(로봇 그리고 인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늦어도 오는 9월께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예상했다. 반도체를 뺀 대부분의 산업이 회복세라는 진단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2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늦어도 오는 9월께 월간(무역)흑자가 예상된다”면서 “반도체 회복은 좀 더 늦겠지만 조선과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 대부분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무역적자는 올해 들어 월별 계속 그 규모가 줄고 있다”며 “8·9월에는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반기에는 확실히 흑자가 되면서 국민 걱정을 덜어드릴 것 같다”고 했다.

장 차관은 무역흑자 전망 근거에 대한 질문에 “반도체 전망 평가가 조금 안 좋게 나와, 그런 부분을 반영해 흑자 전환 시점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대부분 품목 실적이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배터리와 태양광 분야에서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뒤 수출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적지만, 방산 부분

도 최근에 일부 기업에서는 500명씩 채용할 정도”라며 “유가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유와 석유화학 부문, 전자 분야도 회복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자동차 수출에 대해 장 차관은 “상반기에 교체 수요가 이미 많이 (충족)돼서 하반기에는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며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충분히 재고가 나갔고, 코로나19 이후 교체 수요도 상반기쯤 일단락되며 하반기엔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차관은 국제기구에서 한국 경제를 이전보다 저조하게 전망하고 있다

고 언급했지만 산업연구원의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조사를 들면서 “4~5월 전망치 모두 두 달 연속 플러스가 나왔다”며 “점차 제조업 지수가 개선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이와 함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나 반도체법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많은데, 종합적으로 보면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 차원에서 수출 실적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미·중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리스크로 제기되던 것 중 가령 반도체 업계 등에서 기술 업그레이드 등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은 사상 최대 호황”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상용차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며 “여러 제도를 활용해 전반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기 전 중요 쟁점에 대해 산업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도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협, 전통 손모내기 재현 행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농업박물관 앞 야외농장에서 서울 미동초 어린이들과 전통 손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농협

에스토니아·핀란드 등에 경제사절단 파견

정대진 통상차관보 단장으로 구성
국가별 경제협력 확대 방안 모색

정부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오, 원전 등의 신산업협력, 통상현안 협력 등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제사절단에는 정대진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코트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SK, 한국수력원자력, 셀트리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 등이 참여한다.

경제사절단은 22일 에스토니아산드라 사라브 경제통상부 차관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23일 리투아니아 톨란 다스크리스크키우나스 총리실 선임부실장, 카롤리스 제마이티스 경제혁신부 차관, 에기디우스 메이루나스 외교부 차관을 면담하고, 25일엔 핀란드 페트리 펠토넨 경제고용부 차관보, 26일 핀

란드 니나 바스쿠라히티 외교부 차관보와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정 통상차관보는 각 국가별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진행하면서 ▲교역·투자 확대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 산업협력 ▲유럽연합(EU) 통상현안 협력 ▲디지털·첨단기술 협력 등을 논의해 국가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제사절단은 또 에스토니아, 핀란드 양국에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코트라-에스토니아 기업청간 투자진출 협력 양자협약(MOU)을 체결해 양국의 실질적 경제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유럽 내 전기차용 배터리 시험평가를 위한 KCL 핀란드 지사 개소식이 개최될 예정으로, 향후 현지에서 국내 완성차, 이차전지 업체를 지원하고 이차전지 시험평가분야에서 유럽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말레이서 4243만 달러 상담 성과

‘FIM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FIM 2023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해 총 241회 상담, 4243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FIM(Franchise International Malaysia)은 올해 30회를 맞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박람회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9개국 79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과 전 세계 1만 5000명 이상의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했다.

공사가 운영한 한국관에는 국내 우수 외식 프랜차이즈 8개사가 참가했다



지난 18~2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FIM 2023 국제프랜차이즈 박람회의 한국관을 찾은 바이어들이 상품 설명을 듣고 있다. /aT

며, 떡볶이, 고추장 치킨 등 특색 있는 외식 메뉴들을 선보이며 K-외식 프랜차이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특히, 공사 쿠알라룸푸르 지사에서는 박람회 전에 현지 유력 바이어를 다수 발굴해 우리 외식기업들과 연결해

줬다. 박람회 후에는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법률 자문과 식재료 통관 등 사후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참가 외식기업 J사는 “한국관에 현지 바이어들과 소비자들 몰려와 K-외식 프랜차이즈의 인기를 실감했다”라며, “특히 공사에서 사전 발굴해준 바이어 상담 결과가 좋아서 현지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만족감을 보였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올해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K-푸드와 K-컬처 열풍을 활용해 우리 외식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농관원, 화훼 판매업소 78곳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절화류 위주 단속… 전년비 25.8% ↑
4곳 형사입건·74곳 과태료 448만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화훼공판장, 꽃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5월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4개소) 하거나 미표시(74개소)한 행위를 집중점검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튜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

(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상근 기자

나라바이오, ‘삼진 아웃제’로 판매가 강제

판매지시가격 미이행 사업자 적발 시
경고·물량조절 → 단가 ↑ → 거래 중단
공정위, 재판매가가격유지행위 시정명령

친환경농자재 제조사인 나라바이오가 총판과 대리점 등에 판매가격을 강제하다 적발돼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나라바이오는 판매가 강제를 위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나라바이오가 자사의 친환경 농자재 등 제품을 공급받는 총판 및 지점 판매점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라바이오는 유기농업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농자재를 주로 생산해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18년 7월경부터 2021년 연말까지 2개 총판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며 계약서에 제품별 ‘판매지시가격’을 명시해 총판과 총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전국 농약사 등 대리점들이 판매지시가격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부과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나라바이오는 계약서에 자신의 판매지시가격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특약도 설정했다. 또 판매지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판매금지를 청구하기도 했다.

또 2022년부터는 기존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를 통해 친환경농자재를 유통하며 이들 지정 판매점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고, 그 해 8월경부터는 지정 판매점들의 저가 판매 여부를 조사해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거래상대방이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삼진아웃제를 통해 1차 적발시 경고와 물량조절, 2차 적발시엔 출고 단가 인상, 3차 적발시 거래중단을 예고하고, 일부 판매점의 판매가격을 적발해 경고와 제재를 통지하기도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정학 / 오만석

10th anniversary

MUSICAL

과나고 조공



2023. 07. 12 (수) - 2023. 09. 03 (일)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유준상 이견명 오만석 엄기준 오종혁 지창욱 김건우 영재 김지현 최서연 제이민
서현철 이정열 고창석 이진희 김보정 김석영 최지호 김산호 박정표 정순원 손우민 과나운 이정화 홍유정 이자영 외

주최 SBS insight 제작 insight GENIE MUSIC 협찬 KDB산업은행 홍보 OPENREVIEW 문의 02-541-7152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부산항축제' 개최

미니 엑스포 글로벌 포트 파크
폰툰보트 수상 공연·보트투어
1000대 규모 드론쇼 선봬



부산항대교를 배경으로 '제14회 부산항축제'의 개막축화 불꽃쇼가 펼쳐지고 있다. /뉴스시스

국내 대표적 항만축제인 '제16회 부산항축제'가 오는 27일, 28일 양일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북항 친수공원, 영도 아미르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가 함께 개최하는 올해 부산항 축제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먼저 부산항 물류의 상징인 '컨테이너'를 활용한 공간에서 여러 국가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글로벌 포트 파크(Global Port-Park)'가 준비됐다. 또 북항 친수공원 수로를 따라 폰툰보트(노를 젓거나 모터에 의하여 추진하는 서양식의 작은 배)

위에서 펼쳐지는 이색 수상 공연 '씨스루(Sea-Thru) 콘서트'도 열린다.

이와 함께 오리·문·도넛보트를 체험할 수 있는 '보트투어'와 1000대의 대규모로 구성된 '드론 라이트쇼 & 불꽃쇼' 프로그램도 처음 선보인다.

특히 '글로벌 포트 파크'는 독일의 맥주축제 현장을 그대로 가져온 '독일 맥주관', 인도 전통 하타요가를 체험할 수 있는 '인도관', 중국 고유의 식문화와 만날 수 있는 '중국관', 베트남 전통 커피를 맛볼 수 있는 '베트남관' 등

으로 구성돼, 눈과 입이 즐거운 미니 엑스포를 체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막식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사전 박람회(Pre-EXPO)'를 주제로, 27일 오후 2시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진행된다. 주제관인 '부산 포트관' 개봉 행사와 함께 '글로벌 포트파크' 행사장을 순람하는 탐방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 포트관'에서는 미디어 전시인 '타임라인 슬라이드'를 통해 1876년 개항부터 2030년까지 부산항의 변천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한국이공적개발원조(ODA)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부산항에서, 부산시민들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국제구호단체 '코인트리'와 연계해 스리랑카 학교로 전달하는 기부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지역 이모저모

대전시

'대전은 노담 도시' 캠페인

대전시는 제36회 세계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을 맞아 시민들의 흡연 예방 문화 조성 및 금연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 기간 '대전은 노담(NO 담배)도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3일부터 금연 독려 가두행진과 담배꽂초를 찢는 금연 플로깅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펼친다.

또, 각 보건소는 금연클리닉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한다. 사회관계서비스망(SNS)과 전광판 등에 금연 카드 뉴스와 포스터 등도 게재한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

영주시

27일부터 '소백산 철쭉제'

'2023 영주 소백산 철쭉제'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경북 영주시 소백산 및 서천둔치 일원에서 열린다.

22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 철쭉제는 '知(지)·好(호)·樂(락) - 알리고·느끼고·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영주 고유의 문화를 느끼고, 축제를 즐기고, 소백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는 의미이다.

축제 기간 중 소백산 정상에서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클래식 피아노 공연 '비바, 클래식 with 영주 소백산'이 선보인다. '철쭉! 땀으로 스며들다!(클라이밍 & 어드벤처 체험)', '철쭉의 낭만! 열기구&문보트', 영화상영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영주(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인도·스리랑카·말레이서 경북형 지방외교 펼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3국 방문
외국인력 유치·K-관광 홍보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는 21일부터 30일까지 14억3천만 명의 세계 인구 1위국인 인도를 시작으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방문해 경북형 지방외교를 펼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는 21일부터 30일까지 14억3천만 명의 세계 인구 1위국인 인도를 시작으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방문해 경북형 지방외교를 펼친다.

먼저 이 지사는 인도 28개 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타르 프라데시(UP)주의 요기 주지사와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델리대, 네루대, 수바르미등 3개 대학을 찾아 특강과 함께 유학생 및 우수 인력 유치 설명회도 벌인다. 평소 이 지사는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의 대학과 산업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를 주장해 왔다.

또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문화교류위원회(ICCR)와 함께 경북-인도 합동공연을 갖는다.

경제위기인 스리랑카의 성장 해법으로 이 지사는 국무총리 및 국회의장

과 회담, 고위공무원 대상 특강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중요한 동력이라고 피력해온 평소 철학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스리랑카 시골의 작은 마을이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변화하는 현장인 왈폴라 새마을 시범마을도 방문한다. 현재 경북도는 스리랑카를 비롯한 8개 국가에 새마을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 관광국가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에서는 쿠알라룸푸르와 코타키나발루를 찾아 경북형 K-관광과 K-푸드 열풍을 일으킬 계획이다.

사바주 하지지 주지사 초청으로 코타키나발루를 방문해 관광은 물론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와 인력을 보유한 사바주와 투자 및 계절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ycw57@

울산시, 기술 강소기업 중점 유치

직원 복지 향상·지역 경제 활성화

울산시는 22일 오후 2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술 강소기업 유치 및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안호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권수용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세원테크, 대국정공, 두손화학, 스피스 엔텍, 에이엠트리, 웨이브트리, 이수파트너스, 케이엠씨피, 코넷, 큐파이어, 피아이테크, 해성 등 올해 울산으로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 협약은 기술강소기업 거점(허브)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 기업은 4차 산업 혁명 기술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울산시민을 최우선 고용한다. 또 직원 근로 환경 시설 개선 투자와 보조금 집행 시 울산 지

역 업체와 계약하는 등 직원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도 협약 기업이 울산에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 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한다. 연구 개발 자금은 제출된 연구 과제를 평가해 최소 60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업무 협약 체결 후에는 기술 강소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 권수용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주재로 기술 강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꾸준한 지원을 통해 앞으로 지역 주력 산업, 미래 신산업, 저탄소 녹색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술 강소기업을 중점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전남 농수산물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늘어

태국선 2번째, 전 세계 22번째

전남 농수산물식품 해외 수출 확대를 견인할 현지 전진기지가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는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 우수 농수산물 동남아 수출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인 농수산물식품 상설판매장을 지난 18일 개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설판매장은 태국에선 두 번째이고, 전 세계에서 아홉 개 국가 스물 두 번째다.

세계적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 음식에 대한 높은 인기에 힘입어 전남산 농수산물식품의 동남아 시장 개척 발판

이 될 전망이다. 판매장엔 완도 전복과 김 등 해조류, 강진 딸기, 영광 굴비, 담양 한과, 고흥 나물 등 전남을 대표하는 농수산물식품 34개 제품이 입점해 판매된다.

2020년 방콕 지두방 파라다이스점에 전남 상설판매장을 개설한 후 한국인은 물론 현지 관광객이 많은 치앙마이에 추가로 상설판매장을 개설했다.

전남도는 태국을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일본 등에 총 9개 상설판매장을 추가로 개설해 농수산물식품 수출기업의 안정적 수출 판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여수시, 프랑스 1만 톤 급 크루즈 입항

343명 태운 '르 소레알' 크루즈

전라남도 여수시는 프랑스 포난의 1만 900톤 급 르 소레알(Le Soleal) 크루즈가 프랑스, 미국, 호주 등 18개국으로 구성된 승객과 승무원 343명을 태우고 지난 21일 여수엑스포터미널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르 소레알(Le Soleal) 크루즈 승객들은 순천 낙안읍성,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순신광장 등 전남 동부권 주요 관광지로 구성된 3개 관광코스를 둘러본 후 이날 오후 일본 후쿠오카로 출항했다.

이번 크루즈 입항은 지난 4월 미국 실버시의 실버 위스퍼호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전남도와 여수시가 지난해 4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에 참가해 세계



크루즈 입항 환영. /전남도

적 크루즈 선사인 포난과의 기항지 설명회 및 개별 면담을 통해 성사됐다. 오는 10월에 실버 위스퍼호가 한 차례 더 입항한다.

전남도는 지난 3월 미국 포트로더데일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에 참여해 기항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포난과 실버시의 2025년 기항이 기대된다. /여수(전남)=양수영 기자

강진군

'먹개비' 누적 결제액 3억 돌파

전남 강진군은 공공배달앱 '먹개비'의 누적 결제 금액이 3억 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된 공공배달앱 먹개비는 민간 배달앱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6.8~15%) 대비 국내 최저 주문 중개수수료(1.5%)로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입점비나 광고료가 없는 전라남도 민간 협력형 공공배달앱이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먹개비는 입소문을 타고 알뜰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용률이 증가하며, 5월 기준 누적 주문수는 1만2324건으로 결제금액은 3억 원을 돌파했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롯데, 中企 해외진출 앞장... 호주서 818억 상담 성과

코트라와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지주·유통계열사·식품사 등 참여 국밥 등 한식, 세럼 등 K-뷰티 선배 중소기업 110개사 상품 전시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 병행



지난 19일 시드니 시청에서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개막식 행사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동규 롯데홈쇼핑 커뮤니케이션부부장, 안성준 KOTRA 소비재바이오실장, 신성주 롯데지주 정책지원팀 상무, 이태우 주시드니한국총영사, 카일리 벨 NSW주 투자청 통상투자그룹장, 강홍원 호주시드니한인회장, 박창은 KOTRA 무역관장.

롯데가 그룹 차원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구체적인 열매를 맺고 있다.

롯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지난 18~21일 호주 시드니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진행해 상담실적 6200만달러(약 818억 원)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엑스포는 2016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롯데홈쇼핑 상생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 롯데지주와 유통 계열사가 참여하는 그룹 차원 통합사업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롯데 식품사도 참여했다.

19일 시드니 시청에서 열린 개막식엔 신성주 롯데지주 정책지원팀 상무, 이동규 롯데홈쇼핑 커뮤니케이션부부장 등 롯데 관계자를 비롯해 이태우 주시드니한국총영사, 안성준 KOTRA 소

비재바이오실장, 강홍원 호주시드니한인회장, 카일리 벨 NSW주 투자청 통상투자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현지 바이어에게 국밥, 된장찌개 등 한식을 비롯해 세럼, 크림, 고데기 등 K-뷰티 상품을 선보였다. 쇼케이스 행사장엔 중소기업 110개사 상품 전시 공간이 마련됐다.

시드니항 해외 승객 터미널 야외광장에는 기업 간 소비자간 거래(B2C) 상품 판촉전이 열렸으며 일부 업체는 상품이 조기 매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K-푸드 쿠킹쇼, K-팝 커버댄스, 한

국무용 등 각종 한류 문화공연에도 관람객이 몰렸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롯데홈쇼핑 캐릭터 '벨리곰'을 활용한 포토월에서 즉석사진을 찍는 등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이 몰렸다.

행사에 참여한 문대건 대건명가 대표는 "수출 잠재력이 높은 오세아니아 시장에 한식을 소개할 기회를 얻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롯데가 한국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성주 롯데지주 정책지원팀 상무는 "롯데그룹 통합 상생 프로그램인 '롯데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통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활약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롯데와 함께 걸어가는 동반성장의 길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이동규 부문장은 "2018년 호주에서 엑스포를 개최한 뒤 5년 만에 오세아니아 전 지역으로 규모를 확대했다"며 "올해 첫 진행된 호주 수출 상담회로 참여 기업이 오세아니아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는 한류 콘텐츠 인기로 K-소비재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호주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100개사가 수출 상담회에 참여했다.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지역 바이어 150개사가 몰렸으며 누적 상담건수 595건, 상담금액 6200만달러를 기록했다.

롯데홈쇼핑은 이 엑스포를 총 16회 개최해 누적 상담건수 8513건, 수출 상담금액 약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하림 '용가리 어묵'과 '용가리 만두'

용가리 어묵·만두 출시 하림, 브랜드 라인업 강화

하림이 최근 공통 모양 어묵인 '용가리 어묵'과 아이들 입에 꼭 들어갈 크기의 '용가리 만두'를 새로 출시하며 '용가리'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번에 출시한 '용가리 어묵'은 고급 생선살로 꽉 채웠다. 고급 생선 실꼬리 돔 연육 82.8%에 다시마가루와 멸치가루를 넣어 깊은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티라노사우루스, 브리키오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파라사우롤로푸스 등 다섯가지 공룡모양으로 만들어져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용가리 만두'는 돼지고기와 메인 채소 모두 100% 국내산 재료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만두피도 우리밀을 사용했다. 찹쌀가루를 넣어 쫄득한 식감까지 살렸다. 한입에 꼭 들어가는 크기의 만두에 야채를 곁들여 다져 넣어 야채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물만두로 즐기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도 바삭한 식감이 별미다.

/이세경 기자

제너시스BBQ 국회동심한마당 참여 '치킨캠프' 체험존 운영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제15회 국회동심한마당' 축제에 참여해 치킨 기부와 치킨캠프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BBQ는 이번 축제에서 아이들이 외식산업 현장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조리 체험을 준비했다. 기존 이천 치킨대학에서 진행되는 치킨 조리 프로그램 '치킨캠프'를 국회 잔디광장에 체험존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부스에서 치킨 반죽부터 튀기기까지 직접 체험하고 만든 치킨을 시식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BBQ는 현장에 참석한 시민을 대상으로 BBQ앱 회원 및 BBQ 카카오톡플러스 친구 인증 시 BBQ 올치팝(팝콘 치킨)과 레몬보이 1200인분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한편, H20 품앗이운동본부 주최로 2005년부터 시작된 국회동심한마당은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 동심을 매개로 하나되어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나누는 축제다.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3년간 중단했다가 최근 엔데믹으로 다시 개최됐다.

/신원선 기자

홈플러스, 2030재구매율 77% '단골' 확보

6개월간 멤버십회원 소비패턴 분석 델리·미트·주주 등 8개 클럽 운영 '홈랭클럽' 2030매출 신장률 91%

홈플러스가 고물가 시대에 똑똑한 소비를 지향하는 2030세대 고객의 마음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최근 6개월간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2030세대 고객의 재구매율이 약 77%에 달해 젊은 단골 고객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2030세대 고객 4명 중 3명 이상이 다시 홈플러스를 찾아 상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홈플러스가 지난 2017년 처음 선보인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클럽'은 고

객의 관심사에 따라 맞춤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마이홈플러스 앱 전용 서비스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

홈플러스는 현재 현재 ▲가장 먼저 만나는 신상 델리 '델리클럽' ▲고기엔진심인 모두를 위해 '미트클럽' ▲세상 모든 술을 만나 '주주클럽' ▲패션피플의 오늘 스타일 '패피클럽' ▲세상 쉬운 맛집 투어 '홈랭클럽' ▲내 아이를 위한 모든 혜택 '베이비&키즈클럽' ▲스마트한 펫케어의 시작 '마이펫클럽' ▲나만의 여행 메이트 '여행클럽'까지 총 8개의 클럽을 운영 중이다. 최근 6개월간 각 클럽별 2030세대 회

원의 매출 신장률보다 월등히 높았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2030세대 회원 주류 매출 신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였으나, '주주클럽'에 가입한 2030세대 회원의 주류 매출 신장률은 약 74%로 크게 늘었다.

홈플러스몰 식음코너마이홈플러스 멤버십 2030세대 회원 매출 신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1%였고, 식음코너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홈랭클럽' 2030세대 회원의 매출 신장률은 91%를 기록했다.

상품 중에서는 델리에 젊은 수요가 집중됐다. 홈플러스 델리는 최근 6개월간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2030세대 회원 매출이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스



2030 고객이 홈플러스에서 델리클럽 상품을 구경하고 있다.

시 도시락, 샌드위치 등 1~2인용 델리 메뉴도 급부상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론칭한 '당당치킨'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1일 출시한 '생크림 폭탄 단팔빵'은 SNS 등에서 입소문을 타며 약 일주일 만에 3만 여 개가 판매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신세계인터, 20 최초 '리포메이션' 판매

신세계百貨 강남점에 매장 오픈

신세계인터내셔널이 프랑스 브랜드 '쿠레쥬(Courreges)'에 이어 미국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 '리포메이션(Reformation)'의 국내 유통을 맡으며 수입 패션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한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이달 리포메이션의 국내 첫 단독 매장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오픈한다고 22일 밝혔다. 리포메이션이 아시아에 매장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세계 강남점 매장에서는 국내에서 많은 마니아를 형성한 원피스 라인을 주력으로 선보인다.

빈티지 꽃무늬 패턴이 매력적인 원피스부터 고급스러운 실루엣의 슬립 원피스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또한 아우터, 상의, 데님, 팬츠, 신발 등 리포메이션의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주요 제품 가격대는 티셔츠 10만~40만원 대, 스커트/팬츠 20만~30만원 대, 원피스 20만~80만원 대 등이다.

리포메이션은 200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빈티지 숍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패션과 지속가능성의 공존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신원선 기자

티몬 '파워딜' 셀러 매출 47% 증가 견인

구매고객 2.7배, 상품노출 73% ↑

티몬의 신규 마케팅 프로그램 '파워딜'이 입점 셀러들의 매출 상승과 고객 확대를 견인하는 핵심 창구로 역할하고 있다.

티몬이 지난 1월 시작한 '파워딜'은 하루 1만원의 광고비로 티몬이 할인 비용을 분담해 상품경쟁력을 높이는 특별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셀러는 적은 부담으로 마케팅에 나설 수 있고, 고객은 기존에 눈여겨보던 상품을 신규 할인가로 만날 수 있어 시작부터 이목을 끌었다.

실제로 티몬은 '파워딜' 오픈 2달만에 참여 셀러들의 매출은 평균 47% 늘었고, 구매 고객은 2.7배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셀러들의 일 평균 상품 노출은 기존보다 73% 증가했고, 매출 또한 47% 상승했다.

파워딜 구매고객은 지난 1월말 론칭 이후 매달 평균 66% 가량 늘었다. 덕분에 지난 4월 파워딜 구매 고객 수는 2개월 만에 2.7배로 급증했으며 총 구매액(272%)과 구매 건수(289%) 또한 3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드러진 셀러 사례도 나왔다. 최근 파워딜에 참여한 '주식회사겨성'은 5만원대에 판매하던 '침향환'을 티몬의 수수료 지원을 더해 1만9900원에 특가 판매한 결과 6일간 2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신원선 기자

셀프 투여 가능한 '램시마SC'... 직판 넓혀 중남미 공략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브라질서 인력 30여명 확충
직판 역량 지속적 강화해
6개국 현지법인 중심으로 출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램시마SC 런칭 행사' 현장 모습.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가 직접판매(직판) 영토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램시마SC가 인플릭시맙 제제 가운데 유일한 피하주사 제형으로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병원 내원객을 줄여 의료진의 호응도도 높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제약시장인 브라질에서 '램시마SC'를 출시하며 중남미 시장 공략에 본격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측은 브라질에서 램시마, 트룩시마 등 기존 제품들과 함께 램시마SC도 직판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현지

법인 소속 커머셜 인력을 30여명까지 확충하는 등 직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브라질은 중남미 제약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국가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론칭 초기부터 정부, 의사, 환우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미팅을 확대하면서 맞

춤형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브라질 법인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상파울루에서 램시마SC 출시를 기념하는 런칭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증성장질환(IBD) 분야의 석학들을 비롯한 100여명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램시마SC의 리얼월드 데이

터 및 유럽 처방 확대 현황을 소개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글로벌 주요 시장인 유럽에서 램시마SC가 가파른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만큼 브라질에서도 기존 제품들의 성과를 토대로 처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미 램시마는 브라질에서 2년 연속 연방정부 입찰에 성공하는 등 2022년 기준 8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처방 1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트룩시마 또한 공격적인 입찰 전략으로 70% 이상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달성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현재 브라질 외에 콜롬비아,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등 중남미 6개국에 현지법인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은 80~95%에 이른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중남미 지역 강경두 담당장은 "브라질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등 당사

의 현지 법인이 설립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램시마SC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가별 커머셜 전문 인력들이 직판할 예정인 만큼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이끌면서 중남미 지역 내 램시마SC 처방 확대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진출도 본격화된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램시마SC의 허가신청을 완료했다. 램시마IV 제형은 미국에서 지난 1월 32%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해 출시 이후 현재까지 인플릭시맙 바이오시밀러 처방 1위를 지속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제형의 편의성을 앞세운 램시마SC가 미국에서 허가를 획득하면, 앞서 출시돼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램시마IV 제형과의 시너지를 통해 침투가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메드팩토, 뼈 질환 혁신신약 후보물질 소개

대한골대사학회 학술대회서
김성진 대표, 'MP2021' 설명



혁신신약 후보물질 'MP2021'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발표에서 MP2021의 작용기전과 치료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 기반 혁신신약 개발기업 메드팩토는 지난 18~20일 서울 그랜드워커히호텔에서 열린 대한골대사학회 제35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뼈 질환 혁신신약 후보물질을 소개했다고 22일 밝혔다.

메드팩토 김성진 대표(사진)는 학술대회 마지막날인 지난 20일 '뼈 세포 생물학에 대한 최신 연구'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메드팩토가 개발 중인 뼈 질환

MP2021은 류머티스 관절염, 건선 관절염, 골다공증 등 뼈 질환과 자가면역질환을 타깃으로 하는 신규 후보물질이다.

인간 뼈의 골수에는 파골세포가 있는데, 파골세포가 분화해 다핵 파골세포가 되면 뼈를 갉아먹는다. 이는 류머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 뼈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MP2021은 파골세포가 다핵화하는 것을 막고 골 분화를 억제하는 기전의 신약 후보물질이다.

MP2021은 휴미라 등 다른 치료제와 달리 염증이나 파골세포의 성장인자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뼈를 녹이는 다중 파골세포의 형성을 막는 약물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메드팩토는 MP2021에 대해 최근 동물실험을 완료했고, 이를 기반으로 지금 유럽에서 독성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MP2021에 대한 PCT(국제특허출원)도 완료했다. /이세경 기자

강스템바이오텍, 獨서 골관절염 치료제 주목 받아

국제정형외과학회 'ATiO'서 발표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18~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정형외과학회 'ATiO'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ATiO는 정형외과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대학 연구자, 임상 전문가, 다국적 제약사 등 개발전문기업의 교류를 지원하며, 기업의 경우 초대 받은 회사만 참석이

가능하다. 강스템바이오텍은 골관절염 치료제 연구개발 기업으로서 아시아 기업 중 유일하게 초대받아 퓨어스팀-오에이 키트주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 및 다국적 제약사의 사업개발 관계자들과 동물실험 결과, 임상시험 진행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사는 수술 없이 무릎관절강내 단회 주사투여를 통해 근본적 치료(DMOAD)를 목표로 하는 퓨어스팀-오에이 키

트주의 개발성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골관절염이 유발된 대동물(염소)에 시험약물을 투여한 동물실험 결과에 참석자들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와 무세포 연골기질인 CAM을 함께 투여하는 융복합제제로 줄기세포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무릎관절강내 미세환경을 구축하는 특징이 이목을 끌었다. /이세경 기자

동서식품, '카누 하우스' 팝업 성료

누적 방문객 총 6.1만명
'카누 바리스타' 캡슐 체험

커피 브랜드 '카누(KANU)'의 가치와 비전을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한 팝업 스토어 '카누 하우스'가 성황리에 마감표를 찍었다.

동서식품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진행

한 '카누 하우스'에 누적 방문객 총 6만 1597명, 일 평균 방문객 1000여명이 방문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카누 하우스'는 카누의 역사와 제품 라인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카누리움과 오피스, 홈, 에스프레소 바, 푸르탑 등 층마다 콘셉트에 따라 꾸며진 다채로운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신제품 캡슐커피 '카누 바리스타'의 8가지 캡슐

중 하나를 직접 골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캡슐은 프라우드 오션과 케어링스타 디카페인이었으며 나머지 캡슐도 골고루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스탬프 미션을 통한 경품 제공, 입사지원 체험과 나만의 키링 만들기 등 특별한 이벤트로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3종 프로폴리스 섭취하고 항균·면역 케어

일양약품, '프로폴리스 트리플 케어'

일양약품이 3종 프로폴리스를 섭취할 수 있는 '항균·면역 프로폴리스 트리플 케어'를 새롭게 출시했다.

프로폴리스는 외부 유해요소(바이러스, 세균 등)으로부터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꿀벌이 생성한 물질이다. '항균·면역 프로폴리스 트리플 케어'는 식약처 최대 함량의 프로폴리스이며, 그린(브라질산), 레드(미국산), 브라운(호주산) 3종 프로폴리스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브라질 정부 공식 S.I.F. 인증을 획득한 그린 프로폴리스와 미국 전문업체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즈우드 수액에서 추출한 레드 프로폴리스를 사용했다. 부드러운 맛이 장점인 브라운 프로폴리스는 청정 호주 원물에서 추출해 고품질이 장점이다. /이세경 기자



일양약품 '항균·면역 프로폴리스 트리플 케어'

식물성이라 소화가 용이하며 캡슐을 씹어 터뜨리는 과정에서 프로폴리스가 입안에 직접 닿기 때문에 구강 항균에도 효과적이다. 아연이 들어 있어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이 된다. 프로폴리스와 셀렌을 통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 세포 보호가 가능하다.

11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뿐만 아니라 자일리톨, 아카시아꿀 등 부원료까지 엄선하여 투입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이세경 기자

종근당 " '관절엔 자관원'으로 건강 챙겨요"

MSM·NGA·수용성 칼슘 주성분

종근당은 최근 관절,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리미엄 관절 건강기능식품 '관절엔 자관원'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절엔 자관원은 관절과 연골조직을 구성하는 황성분의 일종인 MSM을 비롯해 갑각류의 주성분인 키틴에서 추출한 N-아세틸글루코사민(NAG), 수용성 칼슘을 주성분으로 하여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주성분 외에도 녹용, 홍삼, 당귀 등 20가지의 한방 소재를 배합해 기능을 강화했다.

이 제품은 4단계 공정으로 불순물을 최소화한 순도 98% 프리미엄 MSM 2000mg과 NAG 500mg, 수용성 칼슘 210mg 등 각 기능성 원료의 하루 최대 권장 섭취량을 함유하고 있다. 관절관리가 필요한 중·노년층과 갱년기 여성,



종근당 '관절엔 자관원'.

어깨, 손목, 팔꿈치 등 관절 부위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액상 형태의 파우치 포장으로 1일 1회 1포로 하루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으며, 기호에 따라 따뜻하게 데워서 먹을 수 있다.

기능성 원료인 MSM은 무릎 관절 질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체적용 시험에서 관절 통증 감소와 불편함 개선 효과를 나타냈으며, NAG는 관절염 환자의 보행 능력을 유의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세경 기자



포켓몬 공식 라이선스 신제품 출시!



포켓몬 맥세이프 보조배터리

강력한 맥세이프 자성! 슬림하고! 가볍다!
최대 20W 유·무선 고속 충전!

포켓몬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귀여운 피카츄 얼굴을 그대로 담은 마우스패드로
나만의 PC공간을 밝고 귀엽게 꾸며보세요!



상품문의 | 게임피아(주) 공식 온라인몰 : www.sofrano.com & TEL : 031-447-8858

※해당 제품은 한국 내 포켓몬 공식 라이선스 상품입니다.※

본 제품은 한국 내 독점적 저작권 관리자인 (주)포켓몬코리아와의 정식 계약에 의해 생산되므로 무단 복제 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 내에서만 판매 가능.

©Nintendo, Creatures, GAME FREAK, TV Tokyo, ShoPro, JR Kikaku. ©Pokémon.
포켓몬스터, 포켓몬, Pokémon은 Nintendo의 상표입니다.





하나은행-SK실더스, 보안·금융 비즈니스 맞손

하나은행은 SK실더스와 보안솔루션을 제공하고 금융서비스와 연계한 공동 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통현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오른쪽)과 김윤호 SK실더스 성장추진실장이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SK실더스 사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KGC인삼공사, LPGA 스타 '안드레아 리' 후원

KGC인삼공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LPGA스타 안드레아 리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드레아 리는 2019년 프로로 데뷔한 스탠포드 출신 골프 선수로, 최근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골퍼로 손꼽히고 있다. LPGA 안드레아 리 선수(왼쪽)와 KGC인삼공사 이홍실 미국법인장이 지난 19일 후원 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GC인삼공사



한투증권, 전주 호성보육원에 '꿈 도서관' 개관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전라북도 전주시 호성보육원에 '한국투자 꿈 도서관 3호'를 개관했다고 22일 밝혔다. (왼쪽부터) 나소영 호성보육원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김성태 월드비전 ESG사회공헌본부장이 개관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아워홈, '가평전투지 숲길 조성 사업' 후원

글로벌푸드케어&서비스 아워홈이 한국전쟁(6·25전쟁) 정전 70주년 및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캐나다 참전 가평전투지 숲길 조성 사업'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경기도 가평군 참전비 경내에서 열린 '캐나다 참전 가평전투지 숲길 조성' 기념식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이동훈 아워홈 부사장(가운데)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아워홈



태광산업·대한화섬, '산업안전 도전 골드벨' 개최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19일 울산공장 사내 복지관에서 '2023 산업안전 도전 골드벨' 행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태광산업·대한화섬의 석유화학생산본부와 첨단소재생산본부, 협력사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안전법령 및 사내 안전규정 관련 문제를 '골드벨' 형식으로 풀었다. /태광그룹

현대차 N 브랜드, '뉘르부르크링 레이스' 우승

**8년 연속 완주... 기술력 입증
이번엔 N TCR 종합순위 26위**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N 브랜드가 가혹한 주행 환경으로 '녹색 지옥'으로 불리는 뉘르부르크링 서킷을 완주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현대차 고성능 N 브랜드는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뉘르부르크링 레이스)'에서 우승과 함께 8년 연속 완주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는 20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독일 뉘르부르크링에서 열린 '뉘르부르크링 레이스'에서 '엘란트라 N TCR(국내명 아반떼 N TCR)'과 'i30 패스트백(Fastback) N Cup Car'가 각각 TCR 클래스, VT2 클래스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131대 차량이



'2023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에 참가한 드라이버들과 스태프 전원이 다 함께 환호하고 있는 모습

출전해 88대가 완주에 성공했다. 현대차는 TCR 클래스에 엘란트라 N TCR 2대, VT2 클래스에 i30 패스트백 N Cup Car 2대 등 총 4대의 차량을 출전시켰고 3대가 완주에 성공했다.

특히 엘란트라 N TCR은 3년 연속 TCR 클래스 우승을 달성한 것은 물론 종합 순위 26위에 올라 고성능 N 브랜드의 우수한 내구성과 주행

성능을 입증했다. VT2 클래스에 출전한 i30 패스트백 N Cup Car도 VT2 클래스 1위를 차지하면서 종합 순위 68위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2016년부터 8년 연속 뉘르부르크링 레이스 완주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N 브랜드의 기술력을 뽐냈다.

틸 바텐베르크 현대차 N 브랜드 & 모터스포츠사업부 상무는 "뉘르부르크링 레이스 8년 연속 완주와 함께 엘란트라 N TCR이 3년 연속 TCR 클래스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둬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성능 N 브랜드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한항공, 네팔서 봉사활동... "세계 곳곳에 나눔 가치 전달"

사내봉사단, 어린이 보육원 찾아
온수 시설 설치... 한국어 교육도

대한항공 사내 봉사단이 네팔의 어린이 보육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한항공은 사내 봉사단원들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네팔 치트완 지역의 어린이 보육원에서 시설 설치 및 교육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치트완은 대부분 지역이 자연 그대로 잘 보존돼 있지만 전기, 수도, 학교, 의료기관 등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곳이다.

대한항공 봉사단원들은 소외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소망의 집' 보육원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취약한



대한항공 사내봉사단 회원들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네팔 치트완 지역 어린이보육원을 방문하여 시설 설치 및 교육 봉사활동을 펼쳤다

온수 난방 시설 설치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학습과 필요한 음향장비를 설치했다. 또 보육원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한편 의료시설이 부족한 현지 사정을 감안해 영양제 등 간단한 상비약도 제공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5월 이곳에서 어린이 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의약품도 전달했다. 같은해 6월에는 보육원 청소년들을 부산으로 초청,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해외 고아원, 요양원 현장을 방문,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

는 나눔 경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캄보디아 프람크나 지역 '희망시온국제학교'를 방문 시설물 보수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지난 2020년 1월에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툰다노 지역의 고아원에서 생활관 건축 공사와 미화 활동을 실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글로벌 항공사로서 다양한 나눔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나눔경영 활동으로 세계 지역사회 곳곳에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ouTube 동영상 제공

카카오, 'MVP 파트너스데이' 성료

카카오가파트너사와 동반성장의 뜻을 나누기 위해 의미 있는 자리를 개최했다.

카카오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제주 오피스에서 최우수 협력사들과 함께 '2023 Kakao Most Valuable Partners Day(이하 MVP 파트너스데이)'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MVP 파트너스데이는 지난

2009년부터 카카오가 협력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15년간 꾸준히 추진해 온 행사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행사는 총 56개 협력사 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2회차에 걸쳐 각각 1박 2일간 진행됐다.

카카오는 참여한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감사패를 증정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동국제약,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

동국제약은 지난 20일 서울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마데카솔과 함께하는 제24회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5월부터 환자수

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모기, 진드기 매개질환(자카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등)에 대비해 모기 기피제인 '디펜스스'스' 체험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인사

◆조달청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상수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기술서기관 이성언

◆한국화학연구원 ◇승진 △화학공정연구본부 수소C1가스연구센터장 채호정 △화학공정연구본부 탄소중립화학 공정실증센터장 한중진 △화학소재연구본부 박막재료연구센터장 명성 △화학소재연구본부 고기능고분자연구센터장 김윤호 △의약바이오연구본부 희귀질환치료기술연구센터장 조희영 △의약바이오연구본부 신약정보기술연구센터장 안선주 △의약바이오연구본부 감염병예방진단기술연구센터장 김남훈 △의약바이오연구본부 친환경신물질연구센터장 최경자 △정밀·바이오화학연구본부 정밀화학연구센터장 김진철 △정밀·바이오화학연구본부 화학산업기술지원센터장 박종목 △화학플랫폼연구본부 화학데이터기반연구센터장 신정호 △화학플랫폼연구본부 화학소재솔루션센터장 조성근

◆NH투자증권 (신규선임) ◇부장 △O

CIO운용부 유익선

◆IBK투자증권 ◇전무 임원 승진 및 신규선임 △WMM부문장 김기연 ◇상무대우 임원 승진 및 신규선임 △자산관리본부장 박종걸 △종합금융본부장 이봉근 △감사본부장 이재덕 ◇부부장 보임 △W holeSale부문 이재일 △SME Solution 부문 이위환 △S&T부문 박태동 ◇본부장 보임 △금융상품영업본부 박정수 △사모펀드운용본부 박양수 ◇센터장 보임 △영업부 박정웅 △IBKWM센터 한남동 손공주 ◇부서장 보임 △WMM지원부 노영진 △금융상품영업부 문재경 △종합금융1부 이용선 △종합금융2부 박상현 △디지털개발부 양철수 △시너지추진부 박기현 △인사부 박철현 △재경부 권오현

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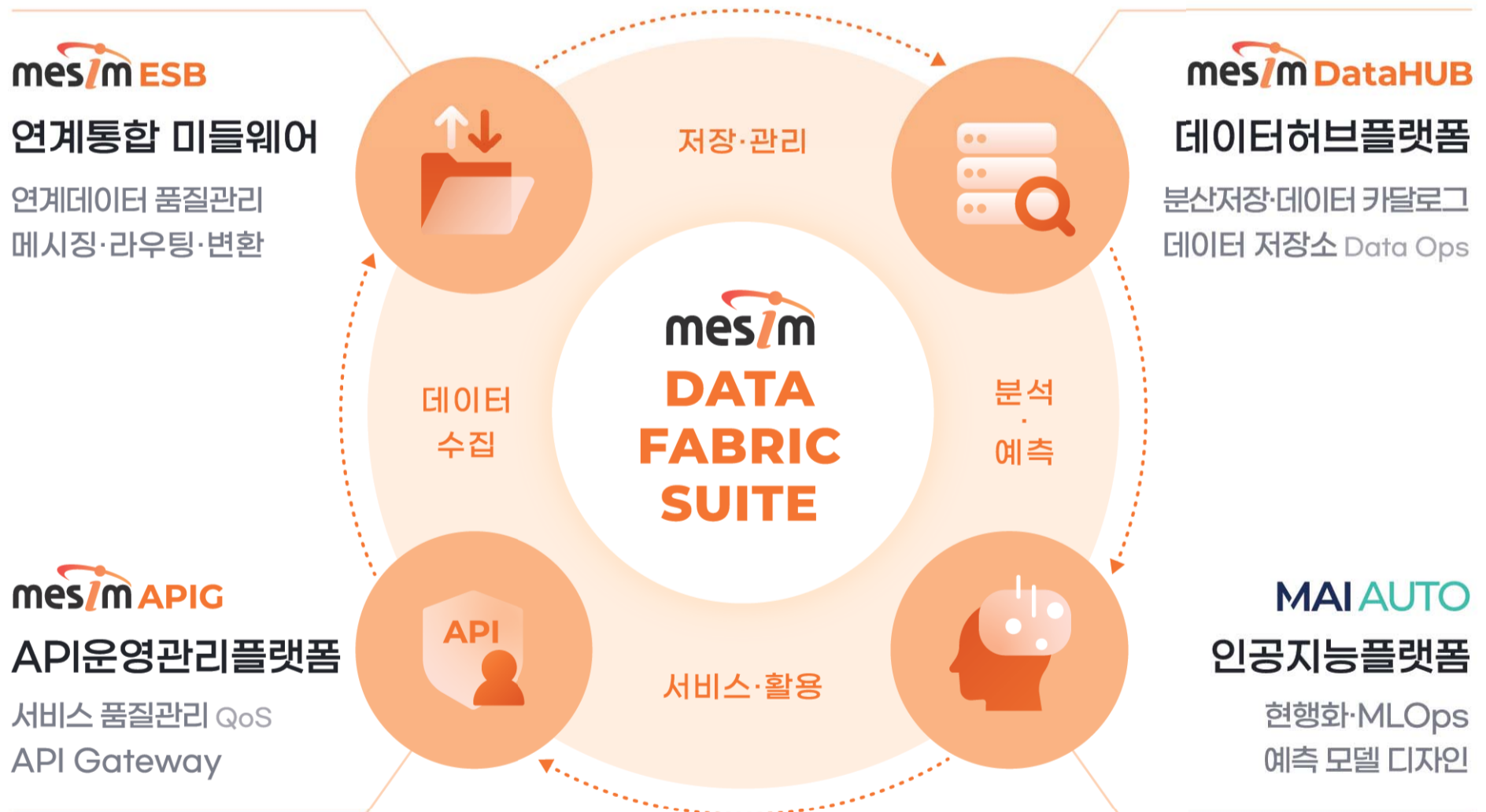
▲안정자씨 별세, 이미혜·윤하·수미씨 모친상, 이주훈(문화방송 라디오 뉴스파트 부장)·강승정(장호 대표이사)·백대규(광주오 치서울청외과 원장)씨 장모상 = 21일, 광주 동구 금호장례식장 401호, 발인 24일, 장지 순천 서면 선영. 062-227-4000

데이터 연계통합(ESB/IoT/망간) SW 3,000여 기관 공급
최고 품질·성능·실적·기술



DX 및 지속가능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Data end2end 기반 핵심기술

DATA FABRIC SUIT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급대상 예측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디지털트윈기반 교통상황시스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계기관 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통 빅데이터 분석 표출 시스템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등

서울시민 “서부선 조속 착공” 온라인 시정참여 목소리 높여

‘상상대로 서울’로 공감 제안
용산공원 접근성 확대 등 주문

서울시민들이 서부선 조속 착공, 용산공원 접근성 확대, 서울기록원 콘텐츠 보강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22일 서울시의 온라인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따르면, 서부선 착공을 서둘러달라는 민원은 지난 8일부터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시민 118명의 호응을 끌어내 이달의 최대 공감 제안으로 뽑혔다.

현재 시는 은평구 새철역(6호선)에서 여의도를 거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16km를 잇는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지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산공원 임시 개방 부지인 캠프 서빙고의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홍모 씨의 제안은 지난달 24일부터 5월22일 오후 1시30분까지 시민 104명의 지지를 받았다.

홍씨는 “용산공원 캠프 서빙고는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장애인 외에는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도보로 접근해 이용하게 된다”면서 “시설이 좋은 데 비해 이용객이 많지 않은 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측 한강중학교 쪽에 개방되지 않은 출입구를 열어주면 서빙고동, 보광동 지역 주민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녹사평대로 쪽에서 오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공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용산공원 정식 개장에 앞서 임시로 개방하고 있는 장교속소 5단지(캠프 서빙고)는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관리를 위해 동시간 이용객을 500명으로 제한하고 문 여는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시는 “출입구 확대에 따른 시설물 리모델링, 인력 추가 배치 등 운영·관

리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방문객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장교속소 5단지의 접근성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서울기록원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해달라는 제안은 올 4월25일부터 현재까지 시민 56명의 공감을 얻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서울기록원은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지방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서울시에서 생성되는 기록물을 보관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기능을 한다.

청원자 석모 씨는 “정지된 시각자료 형태보다는 장소의 정취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면 관람객들이 전시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움직이는 시각자료에 익숙한 시대인 만큼 동영상 상영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는 “올 하반기 2층 전시를 개편할 계획으로 디지털과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체험 등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개편 후에는 전시실 내 체험 코너가 보다 다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틈틈체육 프로젝트’ 200여개교 300만원씩 지원

복도 끝, 건물 사이 틈새 공간서
쉬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 운동

서울 학교 내 복도 끝, 건물 사이 틈새 공간에 학생들이 운동할 공간이 마련된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등교 후 수업 전 등 자투리 시간에 해당 공간에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틈틈체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내 200여개 학교를 선발해 각 300만원을 지원한다.

‘틈틈체육 프로젝트’는 학교 복도 끝, 건물 사이, 운동장 모서리 등 틈새 공간을 신체활동 공간으로 마련해 아침, 점심, 쉬는시간, 방과후 등 틈새 시간에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포스트코로나로 가는 디딤돌 학기에 학생들의 체력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생 건강 및 체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100여곳 900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건강검진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위축이 지속되면서 서울 학생들의 과체중 및 비만 비



서울 동작구 본동초등학교에서 열린 ‘본동 놀이 한마당’ 운동회에서 학생들이 슈퍼볼 나르기를 하고 있다. /뉴스1

율이 2019년 26.7%에서 2021년 32.1%로 높아졌다. 지난해 서울 초·중·고교생 건강체력평가에서는 저체력에 해당하는 4·5등급이 13.9%로 코로나19 전인 2018년 9.3%보다 4.6%p 증가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 안의 안전한 실내·외 자투리 공간을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초·중·고 200개교를 선정해 공간 구축비로 학교당 300여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에서는 복도에 운동기구(탁구대, 다트 등)를 놓거나 운동장, 건물 코너 등 틈새 공간에 농구골대, 철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벽면이나 바닥을 활용해 체력운동, 신체놀이 공간 등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교통공사, 공항 ‘캐리어 배송서비스’

양방향 지하철↔공항 수하물 배송

서울교통공사는 22일부터 인천·김포공항과 지하철역 간 수하물을 당일 배송해주는 ‘양방향 캐리어 배송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자는 출근길 지하철역에 맡긴 캐리어를 퇴근 후 공항에서 찾아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다. 또 저녁에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호텔에서 체크아웃한 후 인근 지하철역에 캐리어를 맡기고 남은 일정을 보낸 뒤 공항에서 짐을 찾아가면 된다.

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신청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이용 하루 전 티러기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 위치한 한진 택배영업소와 서울역, 홍대입구역, 명동역, 김포공항역에 설치된 티러기지에서 가능하다. 캐리어 인수 및 인계장소는 공항 한진 택배영업소와 4개역 티러기지로 동일하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캐리어 사이즈와 배송 권역, 이용 시기(주중·주말)에 따라 다르며, 최소 1만7000원에서 최대 4만5000원 수준이다.

/김현정 기자 hjk1@



2023 카자흐스탄 의료기기전시회. /경기도

경기도 카자흐 의료기기전시회 710만 달러 수출상담

경기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2023 카자흐스탄 의료기기전시회(Kazakhstan International Healthcare Exhibition)’에 경기도 의료산업체 공동관을 구성하고 60건, 7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도가 공동관을 구성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 경기도 기업은 ㈜셀스헬스케어, ㈜미코바이오메드, ㈜에이스메디칼, ㈜제니스티, ㈜케어포유 등 5곳이다. 전시회를 찾은 중앙아시아 국가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해 제품 설명과 구매 의향 등을 타진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가족·창업 공간 탈바꿈

서울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가 가족 여가 공간을 품은 청년 창업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내고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의 전략거점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0년 서울북부지검과 북부지법이 도봉구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

사)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부지(1만 3209.7㎡)이다. 부지 매입 가격은 970억원이며, 오는 2026년 서울시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일대는 태릉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나, 블록 내부 입지로 접근성 미흡, 한정된 시설 이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만이 가중돼 왔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창문 적용가능 투명 에너지저장 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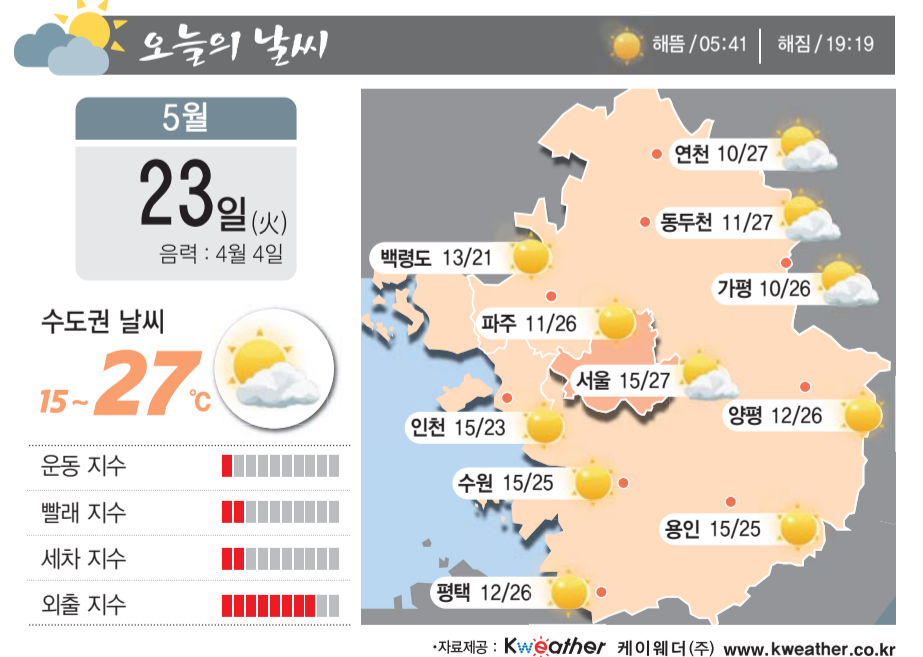
국민대, 임상규·홍다정 교수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제)는 임상규 응용화학부 교수와 홍다정 교양대학교수가 창문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의 뛰어난 가시광 투과도를 가진 투명 에너지저장 슈퍼커패시터(super capacitor)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투명 에너지저장 장치는 자동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건물의 창문 등

과 같은 투명한 구조물 표면에 적용해, 그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도 저장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국민대 연구팀은 높은 전기전도성을 가진 투명한 산화주석 나노입자를 기존 전극 재료와 함께 증착함으로써, 효과적인 전자 전달을 이용한 정전용량 향상과 투명도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현진 기자



뉴스터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한국의 룬 대통령”... 바이든 G7 기자회견서 또 말실수
▲일본, G7에 대한 중국 항의 일축... “책임있는 행동 해야” /사진 뉴스1

▲바이든, 독자적 부채한도 인상 안 할 듯... “시간 촉박”
▲기사다 日총리 지지율 56%... 8개월 만에 50%대 회복



▲“병원서 마스크 안써도 됩니다”... 美, 의무화 종료 확산
▲“빌 게이츠, 성범죄 애플스타인에 ‘불륜 폭로’ 협박 받아” /사진 뉴스1



롯데 수출중소와 상생 호주서 818억 상담실적
나



Life

셀프투여 가능한 '램시마SC' 중남미 공략 L2



탄소 줄이고, 봉사 더하고... ESG로 하나되는 '희망 나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하나증권

하나증권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선도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나눔 봉사활동, 2차전지 생태계 구축, ESG 투자상품 출시 등 ESG 전 분야에서 책임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하나증권은 이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추진위원회-담당부서'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 지속가능경영 정책의 수립 및 중장기 전략 등을 결의하고 지속가능경영 추진과제 이행 현황에 대해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난해 한국ESG기준원(KCGS) ESG 통합평가 지배구조부문에서 B+ 등급을 받았다.

◆탄소배출권 시장 선두주자...에너지 발전 투자 지속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하나 증권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기업들이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기업은 할당 범위만큼 제재 없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 만일 탄소배출권이 소진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사들여야 한다.

증권사 첫 탄소배출권 시장조성자 선정 지난해, 자발적 탄소배출권 업무등록

탄소중립 우수기업 투자하는 ETN 출시 2차전지 생태계 조성 위한 업무협약도

하나증권은 지난 2021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탄소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자발적 탄소배출권 업무 등록을 마쳤다. 실제로 하나증권은 탄소감축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방글라데시 6개 주에 태양광 정수시설을 보급하는 탄소감축 사업을 해 탄소배출권 94만톤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싱가포르 탄소배출권 거래소 CIX와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하나증권은 탄소중립 ESG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인 '하나 iSelect-WG 탄소중립 ESG ETN'을 지난해 12월 출시했다. 이 상품은 iSelect-WG 탄소중립 ESG 지수를 기반으로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오른쪽)와 최영찬 SK온 경영지원총괄 사장(가운데), 이후승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흥제동 개미마을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지원을 위한 겨울나기 필수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하나증권

로 ESG 성과가 높은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해 탄소중립 테마와 ESG 테마의 교집합에 투자하도록 설계했다.

올해 들어서도 하나증권은 탄소중립 달성에 공헌할 수 있는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하나증권은 SK온,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과 2차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 및 확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사는 ▲ 2차전지 산업·기업·기술 관련 정보 상호 교환 ▲ 2차전지 유망 기업 발굴 및 투자 ▲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추진 등 2차전지 생태계 구축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할 계획이다.

◆다양한 ESG 활동...3가지 테마로 사회공헌 캠페인 진행

하나증권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하나금융그룹의 미션 실천을 위해 기업과 사회가 연결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나눔, 생명나눔, 희망나눔 등 3가지 테마로 사회공헌 캠페인 'CONNECT 시리즈'를 전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매월 지방영

지역과 연결되는 사회공헌 활동 또한 추진하고 있다.

사랑나눔 부문은 이웃돕기 활동으로 대 전 행복한집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 지원을 위한 급식 나눔 봉사활동,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지원하는 겨울나기 필수품 나눔 봉사활동 진행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29일에 서울 서대문구 흥제동 개미마을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지원을 위한 겨울나기 필수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지역과 연결된 사회공헌 활동 추진 취약계층 어르신 급식, 필수품 등 지원

시각장애 아동들에 점자도구 전달 임직원과 함께하는 매칭 기부활동도

생명나눔 부문은 의료지원 활동으로 올해 5월과 10월에 헌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헌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2일간 본사에서 헌혈차를 운영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고, 2주 동안 집중 헌혈 기간을 운영해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희망나눔 부문은 장애인과 아이들을 위한 활동으로 올해 초 서울맹학교의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점자도구를 전달하고, 5월 초 봄나들이를 함께 다녀오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계절별 의류 기부 캠페인을 실시 중이며 이를 통해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의류 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 및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하나증권은 임직원들이 기부한 만큼, 회사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매칭 기부하는 하나 더 매칭 기부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김장나눔, 행복상자 선물 등 다양하고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해나갈 예정이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친환경, 사회공헌 등 ESG 전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토트넘, 유로파리그 출전 무산...콘퍼런스리그도 불투명
▲ 맨체스터 시티, 첼시 꺾고 EPL 3연패 자축 /사진 뉴시스

▲ 김하성, 4경기 연속 안타 행진...ML 통산 99번째 득점
▲ 원더걸스 유빈, 9세 연하 '韓 테니스 간판' 권순우와 열애



▲ 한국 배트민턴, 中에 저 세계혼합단체 선수권서 준우승
▲ 여자배구대표팀, 발리볼네이션스리그 참가 위해 출국 /사진 뉴시스